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비한자문화권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등급 선정에 대한 연구

2010년 02 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부 영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비한자문화권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등급 선정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부 영

김부영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02 월 일



주 심 문학 박사 곽진석 인

위 원 문학 박사 최호석 인

위 원 문학 박사 채영희 인

차 례

국문요약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3
3. 연구 대상 및 방법	13
II. 교육용 한자어 선정을 위한 한자어 구성에 대한 고찰	14
1. 한자어의 개념	15
2. 한자어의 구성	16
3. 한자어의 형태	17
3.1 파생 한자어	18
3.1.1 파생 한자어의 개념	18
3.1.2 파생 한자어의 유형	19
3.1.2.1 접두 파생 한자어	19
3.1.2.2 접미 파생 한자어	21
3.2 합성 한자어	22
3.2.1 합성 한자어의 개념	22
3.2.2 합성 한자어의 유형	23
3.2.2.1 형태적 구성 합성 한자어	23

3.2.2.2 통사적 구성 합성 한자어	26
Ⅲ.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29
1.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29
1.1 선행 연구에서의 교육용 한자어 선정 기준 및 방법 검토	29
1.1.1 한국어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	31
1.1.2 한국어 교육용 한자 선정 방법	34
1.1.3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분석	36
1.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대표 어휘 선정 방안	40
1.2.1 교육용 어휘의 개념	41
1.2.2 교육용 어휘 선정 방법	45
1.3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47
1.3.1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총 어휘 목록 선정	48
1.3.2 선정된 어휘 검증·보완	58
2. 한자어 구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등급 선정	62
2.1 한국어 교육용 한자 등급 기준	62
2.2 학습자를 고려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등급	65
Ⅳ. 결론	75
◆ 참고문헌	78
◆ Abstract	81

표 차례

【표 1】	한자어의 의존형식.....	17
【표 2】	한자어의 분류.....	18
【표 3】	한자어의 형태적 구성.....	25
【표 4】	한자어의 통사적 구성.....	27
【표 5】	한자어의 구성.....	28
【표 6】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단계.....	30
【표 7】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	31
【표 8】	교육용 한자 선정 방법.....	34
【표 9】	교육용 한자어 선정 방법.....	37
【표 10】	선행연구에서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방법.....	39
【표 11】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방법.....	47
【표 12】	두 자료의 등급 설정이 다른 경우.....	67

국 문 요 약

비한자문화권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 측면에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들의 한자어 학습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과 관련하여 모색해 보았다. 본고의 최종적인 목적은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자어 지도 시 활용 가능한 목록을 제시하고, 초·중·고급으로 등급을 나누는 방안을 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한자 교재의 한자와 현행 한국어 회화 교재의 한자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용 어휘에서 선정된 전체 어휘 중에 한자어 목록을 밝혀, 한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한자어 교육의 중요성과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며,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자어 지도 시 활용 가능한 한자어 목록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무슨’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 한국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그것을 한자화하여 만든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자어 목록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는 있으나, 한자 교육이 아닌 한자어 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자 교육과 한자 교육을 연계해서 한자어 교육 방안

을 제시하고 있지만 1950년 한자 전용에서 1970년 한글 전용으로 한자 교육 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자어 교육과 한자 교육의 연계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한자어 교육을 위해 한자 교육을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현 시대가 한글 전용 시대인 만큼 한자어 교육을 한자 교육이 아닌 한자어 어휘 교육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비한자문화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자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69.1%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한국어 어휘의 큰 갈래로 인식하여 한국어 어휘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목록만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어 학습 대상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자문화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목록과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록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한자어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한자어들이 존재한다. 때문에 한자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목록을 선정하기 보다는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를 조사하여,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한자어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선정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어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자문화권 학습자와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구별하고,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선정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는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현장에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어휘 학습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 비한자문화권 학습자 대상, 한국어 어휘 교육, 한자어 교육

I. 서론

1. 연구 목적

최근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에서 한자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한국어 어휘의 중 60% 이상이 한자어¹⁾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한자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어 어휘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교육은 한자어의 단어 형성 방법이 고유어의 단어 형성과 달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자어는 고유어와는 달리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 결합 방식에 따라 단어가 형성되며, 개별 한자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 한자어의 의미도 결정된다.

이 글에서는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목록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학습 대상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자문화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목록과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록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한자어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한자어들이 존재한다. 한자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목록을 선정하기 보다는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를 조사²⁾하여,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한자어와 전혀 다른 의미

1) 정호성(2000)에 따르면 전체 한국어 어휘의 약 57%가 순수 한자어이고, 한자어와 고유어, 한자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고유어, 외래어가 혼합된 것까지 합하면 한자어가 포함된 한국어 어휘는 전체 어휘의 69.1%에 달한다고 한다.

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선정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를 고려하여 한자문화권 학습자와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구별하고,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겠다.

기존의 한자어 교육 연구에서는 어휘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한자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하는 현장에서는 한자어 교육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며, 한자어 교육을 위한 교재³⁾도 많지 않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측면에서 한자어 교육은 어휘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자어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어휘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한자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한자어 목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선정된 한자어 목록이 등급별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채영희 외(2003)에서는 한국·일본·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를 조사하여 한국·일본·중국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한자어와 한국·일본·중국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조사하여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3)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재는 『pictorial Sino-Korean Characters』, 『Useful Chinese Characters : for Learners of Korean』, 『요모조모 한국읽기』, 『외국인을 위한 재미있는 한자』, 『한자와 배우는 한국어1·2』, 『한자로 배우는 한국어1』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교재들은 한자어 교재보다는 한자 교재에 더 가깝다. 한자어의 기본이 되는 한자를 제시하고, 그 한자를 부수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선행 학습 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후 그 선행 학습한 한자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자어의 의미지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한자어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자어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에 적절한 한자어 어휘를 선정함은 물론이고 선정된 어휘를 등급별로 나눠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자어 어휘 등급이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통일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어휘 선정 기준과 단계별 학습을 위한 등급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비한자문화권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해 보고, 그 선정된 어휘를 등급별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에 관련된 연구 중 한자어 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한자 교육과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과 교육 방안(교수법)으로 나눌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한자어가 아닌 한자 교육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육에 대한 논의는 70년대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장석진(1974), 고영근(1974)의 연구가 있다. 장석진(1974)은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주장하면서 한자 교육의 시기는 중급 이상에서 시작해야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교수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고영근(1974)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한자 교재의 필요성과 교육용 한자 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교수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70년대 한국어 교육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한자 교육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90년대에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 선정

및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중국과 일본 등에서 온 한자문화권 학습자들이 증가하면서, 한자문화권과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분리하여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성격의 논의가 많았고, 학문 목적, 전문 직업 목적 등 고급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및 한자 목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후 한자어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한자문화권 학습자를 고려한 대조분석학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비한자문화권 학습자의 한자 및 한자어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손연자(1984), 최주열(1997), 정승혜(1998), 강현화(2001), 김지형(2003), 한재영(2003), 오수진(2005), 윤유선(2007), 김현정(2008), 이영희(2008), 김광미(2009)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 교육과 교육용 한자어 선정 그리고 교육 방법 등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손연자(1984)의 연구는 70년대 한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한국어 학습자의 대상과 한자 교육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기초 한자 1800자 중에서 신문에 사용되는 낱자를 고려하여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였다. 초급에서는 130자 정도의 낱자를 이용하여 한자의 구조 및 조어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중급에서는 획수의 난이도를 고려한 단어 중심으로 가르쳐야 하며, 고급에서는 획수의 난이도에 구애 받지 말고 단어의 질을 높여서 가르쳐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한글전용 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신문에서 한자를 드러내는 빈도가 극히 낮고, 신문기사에서 한자가 노출되는 경우가 지명이나 인명 정도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손연자(1984)의 연구는 지금의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과 교육 방안 연구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최주열(1994)은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육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먼저 한자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원적 지도, 부수별 지도, 자모별 지도, 음별 지도, 계통별 지도, 교재 중심 지도, 시청각 활용 지도 등을 한자 교육 방법으로 들었다. 또한 개별 수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육 방법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 교육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승혜(1998)는 한자 교육에 대한 첫 학위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정승혜는 한국어 어휘 중 한자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어 어휘 확장을 위한 한자 교육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존에 나와 있는 한자 교재 4종⁴⁾을 비교·분석하고 한자 교재의 학습 내용이 되는 한자의 선정 기준과 고려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외국인 한자 교육을 위한 한자 선정은 외국어 어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를 위한 것으로 교육용 한자로 어휘의 성격을 정하였다. 그리고 한자의 사용 빈도수, 조어력, 교육 가치성 등의 기준으로 교육용 한자를 ‘상용한자 2000자’에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어권과 대만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 목록과 중국어권과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 목록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교육 방법과 교재 구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교육용 한자를 설정함에 있어 기존 한자 교재 4종에서 중복도를 실질적인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자의 조어력이나 사용 빈도 등이 한자 선정 기준으로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강현화·김창구(2001)는 한자 교육의 목적을 한자어의 어휘 학습에 도움

4) 정승혜(1998)에서 분석하고 있는 한자 교재 4종은 손연자 편(1997) 『외국인을 위한 생활 한자』, Fred Lukoff(1982) 『A First Reader in Korean Writing in Mixed Script』, Jacob Chang-ui Kim(1987) 『Pictorial Sino-Korean Characters』, Francis Y. T. Park(1989) 『Speaking Korea-A Guide to Chinese Characters』 이다.

을 주려는 것으로 보았다. 즉, 교재에 나타난 새 한자어 어휘를 학습할 때 한자를 얹으로 한자어 의미 파악과 연관 어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행 한국어 교재 10종에서 3,284개의 한자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교재간의 중복도 뿐만 아니라 교육용 말뭉치의 빈도를 이용하여 조어력이 높은 한자 703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상위 순위의 조어력이 높은 한자들이 한자 교재에 나타난 상위 중복도가 높은 한자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면밀히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재의 어휘를 바탕으로 한 한자어를 교재 간 중복도와 교육용 말뭉치의 빈도 그리고 한자 교재에 나타난 상위 중복도가 높은 한자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통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교육용 한자어와 한자를 선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선정된 교육용 기초 한자어에 대해서는 논의 되지 않았다.

김지형(2003)은 한자 교육을 한자 학습의 대상과 시기, 내용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자문화권과 비한자문화권을 구분해야 하며,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학습 내용으로는 ‘문자 명칭, 발음과 의미, 문자 쓰기, 문자의 유래 또는 구성’ 등 문자의 이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쓰기 교육이나 자원 및 글자의 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용 기본 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해 서상규 외(199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 목록에서 한자어를 추출하고, 한자의 조어력과 빈도를 이용하여 350개의 한자를 선정하고, 이를 기본한자의 수준에 따라 초급 한자와 중급한자로 등급을 설정하였다. 초급한자와 중급한자를 등급 설정의 기준을 ‘기본한자의 수준에 따라’라고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재영(2003)은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한자어 선정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한자 목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한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의 교육용 한자와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의 한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용 한자 선정을 위해 조남호(2003)의 목록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서 사용된 한자어를 비교하여 1,308개의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목록을 한국한자능력검정의 배정한자 급수를 근거로 학습 단계를 설정하였다. 교육용 한자 선정을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한자 목록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선정된 한자 목록의 등급화 기준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한자능력검정의 배정한자 급수를 근거로 제시할 뿐 등급화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금현(2003)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문어 자료 뿐 아니라 구어 자료 또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를 먼저 선정하고 한자어를 선정한 것과 달리, 문금현의 연구에서는 교육용 한자어를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어휘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한국인의 사용 빈도, 난이도, 구어와 문어의 조화 등을 제시하고, 조남호(2003)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에서 한자어를 추출하고, 선정하고 현행 한국어 회화 교재 5종과 비교 분석하여 한자어 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드라마 대본 등 구어자료에서 많이 나오는 한자어 어휘를 사용 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나누었다. 조남호(2003)의 어휘 목록과 현행 한국어 회화 교재 5종 그리고 구어자료의 목록을 바탕으로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 이를 조남호(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다. 한자어 목록 선정 시 문어자료 뿐 아니라 구어자료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다른 연구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선정된 한자어 목록의 등급 기준을 기존의 조남호(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별도의 논의는 없다.

김정남(2005)은 한자문화권과 비한자문화권의 외국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한자 목록이 다르다고 보지 않았다. 교육용 한자어 선정에 대해서는 조남호(2003)의 어휘 목록 중 3,310개의 한자어를 추출하고,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빈도순 따라 6단계의 한국어 교육용 기초한자를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용 기초 한자와 초등교육용 한자 목록을 비교하였으며, 한자교육을 발음 교육, 어휘와 의미 교육, 문법 교육, 문화 교육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교육용 한자어의 등급을 한자어의 빈도수에 따라 6단계로 제시하고 있지만 등급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수진(2005)의 연구에서는 비한자문화권 학습자의 경우 한자어 학습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한자어 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초급 단계에서의 한자어 교육 방법⁵⁾을 제시하였다.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해 각 교재의 한자어 빈도수를 조사하고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의미를 풀어 한자어의 의미와 개별 한자의 의미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개별 한자의 뜻과 한자어의 뜻이 일치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한자어,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조어력이 높은 한자어,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어를 비한자권 교육용 한자어를 어휘 선정 기준으로 세웠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의 초급 교재의 한자어와 조남호(2003)의 목록 중 A단계 어휘를 대상으로 비한자문화권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300개를 선정하였다. 또

5) 대부분의 한자·한자어 교육 연구에서 한자어의 교육을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오수진의 연구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한자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급에서 한자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되지만 중·고급 단계로 갈수록 한자어 어휘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부터 한자어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고급 단계에서 한자어 어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 선정한 한자어를 대상으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한자어의 제자원을 통한 교육 방안과 시각 자료(그림, 만화, 파워포인트 등)를 이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자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자어 교육이 아닌 한자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윤유선(2007)은 비한자문화권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 학습의 전략을 훈련시키고 그 효과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자어에 대한 의미 정보가 어떻게 학습자에게 주어지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전략이 사용되는지 상세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영희(2007)는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한자어 표제어에서 한자의 단순 빈도와 위치별 빈도를 산출하고, 빈도 순 한자 및 한자어의 목록을 마련하였다. 또한 마련된 한자어 목록을 활용한 한자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한자어 표제어를 사용하였는데, 분석 대상이 사전이어서 실제 수업에서 선정된 한자어 목록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영희(2008)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어휘 교육의 일환으로서 한자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어력(造語力)’이 높은 한자를 중심으로 기본 의미를 이해한 후 관련 한자어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 제시된 3,297개의 한자어를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로 삼아, 이로부터 1,412개 한자의 조어력을 산출하고, 한자어 어휘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빈도를 산출함으로써 한자어 교육을 위한 교육용 한자 595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한자 목록을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누었다. 초급에서는 조어력이 20이상의 한자들로 128자를 배정하였고, 중급에서는 조어력이 10이상의 한

자들로 292자를 배정하였다. 고급에서는 조어력이 낮거나 초급과 중급에서 구성하지 못한 303자를 배정하였다. 하지만 교육용 한자의 등급을 정할 때, “초급반에서는 한자어 학습 과정을 10주 과정으로 보고, 초급반에서는 총 17차시에 17과를 구성하고, 1과에서 4과에서는 6자씩, 5과에서 17과에서는 8자씩 구성하여 총 128자를 배정하였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학습해야 할 한자를 6자씩, 8자씩 배정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한자들을 조어력에 따라 배열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현정(2008)은 국내외 교육기관별 교육 현황⁶⁾을 살펴보았는데, 한자·한자어 교육 시수가 부족하고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 교재의 한자와 한자어 목록이 불일치하며 난이도와 목록의 양이 상이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선행연구(한자의 조어력과 의미에 관한 연구들)와 달리 한자의 훈을 정리하고 이에 맞춘 한자어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자의 훈을 학습자에게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한자어의 위계적 문제와 관련된다. 이는 한자의 의미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어떤 의미를 먼저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습할 한자어의 목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한자교재 5종⁷⁾에서 중복된 한자를 추출한 다음 한자의 훈과 용례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교육용 한자·한자어의 목록은 기존 한자교재 5종의 중복도와 조남호(2003)의 목록의 한자어를 비교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한

6)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한자 교육 현황은 한국국제교류재단(2007)를 재인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서의 한국어 한자 교육 현황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전문대, 연세대 등의 한자반이 있는 기관의 한자 교육 현황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7) 김지형 외(2005) 『漢字로 배우는 한국어 I』, 서울대(2007) 『Useful Chinese Characters for Learners of Korean』, 연세대(2006) 『한자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1』 · 『한자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2』, 이영희(2004) 『외국인을 위한 재미있는 한자』, 조준학 외(2002) 『Korean reader for chinese characters』 5종이다.

자·한자어를 초급·중급·고급으로 등급을 설정하였는데, 그 기준으로 “같은 한자가 여러 학습 단계에 모두 출현한 경우 해당 한자가 생성하는 한자어가 가장 많이 출현하는 단계를 기준으로 난이도를 설정할 것이다”라고만 제시할 뿐 등급 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혜영(2008)은 한자문화권과 비한자문화권을 구분하지 않고, 목적에 따라 학문 목적이냐, 실무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어휘 목록을 두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출제된 어휘 중 한자 어휘를 산출하였고, 난이도 면을 고려할 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중 기초가 되는 900자에 해당하는 한자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남호(2003)의 한자어 목록 중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학습용 어휘 목록으로 198개의 한자어를 선정하였고, 실무용 어휘 목록으로 430개의 한자어를 선정하였다. 교육용 한자어를 설정할 때 그 목적을 학문 목적이냐 실무를 목적으로 하느냐를 중점으로 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자어의 목록을 제시할 때 단순히 빈도순만을 고려하여 나열했다는 점과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습용 기초 한자어 목록에서 한자의 난이도를 중학교용 기초 한자 900에 따라 정리했다는 점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김광미(2009) 이영희(2008), 김현정(2008), 박인선(2008)에서의 한자·한자어 목록을 바탕으로 2번 이상 중복되는 한자를 중복도가 높은 한자로 설정하였다. 각 한자가 사용된 한자어를 살펴 초급 학습자의 어휘 수준에서 제시할 한자어와 확장 가능한 한자어 목록을 만들었다. 한자어 조어법을 활용하여 한자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법이다. 각각의 한자에 대표 의미를 정리하고, 제시할 한자어와 확장 가능한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자어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광미(2009)의 연구는 초급 단계에서 교육할 한자어를 제시할

한자어와 확장 가능한 한자어로 나누어 대표음과 대표의미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목록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지 못하고, 차별성이 없다. 또한 초급 학습자의 어휘 수준에서 제시할 한자어 목록을 선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지금까지 외국인을 위한 한자 및 한자어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영근(1974), 장석진(1974)에 의해 한국어 교육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손연자(1984)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고려하여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 교육 방법론이 논의 되었다. 정승혜(1998)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육을 위한 기존 한자 교재 4종을 통해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고,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현화·김창구(2001)부터 한자 교육이 아닌 한자어 교육을 위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김지형(2003)에서부터 최근 연구인 김광미(2009)에 이르기까지 교육용 한자어의 선정과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연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의 선정 기준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 각각의 연구자들이 개별 기준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용 한자를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한자 목록을 바탕으로 한자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각각의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과 한자어 선정 기준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겠다.

둘째, 선정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바탕으로 단계별 등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등급별로 제시한 이영희(2008), 김현정(2008), 김광미(2009)의 연구를 살펴보아도 명확한 등급 기준 안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 그 목록을 바탕으로 단계별 등급 기준을 제시해 보겠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의 선정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었다. 최근의 한자어 교육에 관련한 연구에서 한자어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등급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 정확한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 설정의 주된 근거는 빈도와 개별 한자가 가지는 조어력이다.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함에 있어 빈도와 개별 한자가 가지는 조어력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한자어의 고빈도와 개별 한자의 조어력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령 한자어의 빈도를 기준으로 고빈도 한자어와 저빈도 한자어에 따라 한자어의 등급을 설정한다면 고빈도와 저빈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빈도가 잦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 한자어가 중요성이 높다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이 한자어를 초급 단계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 아울러 한자어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별 한자의 조어력은 한자어 목록의 등급 설정에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개별한자가 합성과 파생의 결합으로 많

은 어휘를 생산한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한자어보다 중요하고,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자의 조어법에 의해 생성된 어휘들이 중요도가 높고, 초급 수준의 어휘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2장에서 한자어에 대한 구성적 특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고, 선정된 한자어 목록을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자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자어의 정의와 한자어의 구성적 특성과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고, 한자어의 선정과 선정된 한자어 목록의 등급 설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하겠다.

3장에서는 크게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의 필요성과 선정된 어휘 목록의 등급 설정에 대해 기술하겠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자어 선정 기준과 등급 기준을 살펴보고, 등급별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제시하겠다.

Ⅱ. 교육용 한자어 선정을 위한 한자어의 구성에 대한 고찰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목록과 선정된 한자어의 등급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자어의 정의와 한자어의 구성과 형태에 대해 살펴보겠다. 한자어의 구성과 형태에 대한 고찰은 비한자문화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한자어 목록을 등급을 설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한자어의 개념

한자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자어의 개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학습에 대한 연구에서 한자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단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기술로 머무르고 있다.

한자어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편)에는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편)에는 “한자로써 된 우리말”로 정의되어 있다. 이 두 사전의 정의를 보면 한자어의 기본은 한자이며, 한자로 쓸 수 있는 말이 곧 한자어라는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 사전이 아닌 논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재기(1987)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말 가운데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모든 낱말”로 정의하고 있다. 노명희(1990)에서는 “그 기원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관계없이 국어 어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자로 표기될 수 있으며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 노명희(1990)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를 보면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될 수 있는 국어 어휘라는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 국어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논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자어의 정의는 “한자로 쓸 수 있는 국어 어휘”라는 것이다. 김광해(1998)는 ‘한자를 구성소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말 어휘부에 등록되어 있는 낱말’로 한자어를 정의하고 있다. 즉 어떤 낱말을 한자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자어를 ‘우리말 어휘부에 등록되어 있는 낱말 중 한 개

이상의 구성소가 한자어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겠다.

2. 한자어의 구성

한자어와 관련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문제 중의 하나가 구성적 특성인 자립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한자어의 바탕이 되는 한자의 영향으로 한자어는 차용어로서 고유어와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자어가 오래 전부터 국어 어휘 속에 사용되면서 자립적인 한자의 특성이 국어 어휘 범주 안에 수용되면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한자 '병(病), 상(床)'의 경우 국어에 대응 고유어가 없으므로 자립 형식으로 존재하지만, '부(父), 일(日)'은 국어에 대응 고유어가 있으므로 자립이 아닌 의존 형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노명희(2005:29)는 한자어의 기능 단위를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따라 자립형식과 의존형식으로 나누고, 의존형식에는 다시 어근과 접사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자어 어근 중에는 국어 화자들이 한 단위로 인식하여 단어 형성에 활용하는 활성화어근과 한문 문법에는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지만 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는 일정한 기능 단위가 되지 못하는 비활성어근으로 구분하였다. 즉 한자어에서 접두사와 접미사를 설정하고, 한자어의 의존형식을 크게 어근과 접사로 나누었다. 어근과 접사는 다시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위 구분을 하였다.

<표1> 한자어 의존형식

의존형식	어근의 종류		어근의 예
어근	활성어근	강활성어근	신선(新鮮), 강력(強力), 간접(間接)
		약활성어근	맹(猛), 호(好), 가(街), 금(金)
	비활성어근		국(國), 가(家), 분(分), 귀(貴), 천(賤)
접사	접두사		친(親)-, 외(外)-, 최(最), 준(準)-
	접미사		-적(的), -성(性), -자(者), -가(家)

3. 한자어의 형태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단어의 분류는 단일어와 복합 한자어로 분류하고, 복합 한자어는 파생 한자어와 합성어로 나누고 있다.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을 단일어라고 하고,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 한자어라 한다. 복합 한자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하나 이상의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 한자어로 나누고 있다. 한자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자어를 단일어와 복합 한자어로 나누고, 다시 복합 한자어를 합성어와 파생 한자어로 나누는 것이다.

한자어 단일어의 경우 ‘강(江), 산(山), 약(藥), 책(冊)’등 1음절 한자어로 한국어에서 단일어로 자립하여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포도(葡萄), 산호(珊瑚), 모순(矛盾)’등은 1음절은 아니지만 각각의 한자가 서로 이외의 다른 한자와 결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포도(葡萄), 산호(珊瑚), 모순(矛盾)’등도 2음절 단일어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살(菩薩), 독일(獨逸), 낭만(浪

漫)’등은 단지 한자의 음을 차용한 것이다. 이들은 의미를 분석하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복합 한자어의 경우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지거나 어근 보다 큰 단어로 구성된 단어를 합성어로, 어근과 하나 이상의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 한자어로 볼 수 있다. 이상 한자어를 단어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한자어의 분류

한자어의 분류		한자어의 예
단일어		강(江), 산(山), 약(藥), 포도(葡萄), 산호(珊瑚)
복합 한자어	파생 한자어	무의미(無意味), 불가능(不可能), 미술가(美術家)
	합성 한자어	언어(言語), 근간(根幹), 졸업(卒業), 일출(日出)

한자어 분류에 따른 내용은 장을 달리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3.1. 파생 한자어

일반적으로 파생 한자어는 여기에 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복합적인 구성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파생 한자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다.

3.1.1 파생 한자어의 개념

한자어의 파생 한자어는 크게 접두 파생 한자어와 접미 파생 한자어로 나눌 수 있다. 접두 파생 한자어란 한자어 접두사가 어기 앞에 붙어 형성된

단어이고, 접미 파생 한자어란 한자어 접미사가 어기 뒤에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하지만 한자어 접두사를 설정함에 있어 학자들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한자어 접두사를 인정하는 연구와 한자어 접두사를 인정하지 않는 연구로 나누어진다. 한자어 접두사를 인정한다고 해도, 기본 단어 앞에 쓰여 단어를 파생하는 모든 한자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접두 한자어를 접두사와 관형사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것⁸⁾으로 보는 연구와 김규철(1997)처럼 ‘준접두사’로 보고 한자어 접두사를 설정하여 연구한 것도 있다. 접미 파생 한자어의 경우 학자들마다 한자어의 접미사를 인정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다만, 접미사의 목록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을 나타낸다. 따라서 파생 한자어를 접두 파생 한자어와 접미 한자어가 덧붙여 생성⁹⁾된 것으로 보고, 접두 파생 한자어와 접미 한자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3.1.2 파생 한자어의 유형

3.1.2.1 접두 파생 한자어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한자어 접두사가 지정되었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접두 파생 한자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8) 김정은(1997)과 노명희(1997)의 연구에서는 접두사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접두사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접두사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성격을 접두사와 관형사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9) 본고에서는 접두 파생 한자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접두 파생 한자어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무조건(無條件), 무책임(無責任)’등과 같이 2자리 구성 한자어 앞에 1자리 구성의 ‘無’가 덧붙여 ‘조건이 없다, 책임을 지지 않다’라는 의미를 파생하는 한자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접두 한자어를 설정하고, 어떠한 접두 한자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최현배(1989)에서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御)-, 귀(貴)-, 존(尊)-, 영(令)-’을, 아니함과 없음과 잃음과 잘못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불(不)-, 미(未)-, 무(無)-, 몰(沒)-, 비(非)-’를, 전수(全數)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總)’을, 농사짓기에 관한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풍(豐)-, 흉(凶), 옥(沃), 박(薄)-’을 제시하고 있다. 이익섭(1968)은 접두사 ‘미(未)-, 불(不)-, 최(最)-, 양(洋)-’ 등을 제시했으며, 고영근·남기심(1985)에서는 ‘가(假)-, 귀(貴)-’ 등을 제시하고 있다(마숙홍, 2004:18)¹⁰⁾.

접두 파생 한자어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접두사라는 용어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김규철(1980)에서는 ‘준접두사’로 정의하였고, 최규일(1990)에서는 ‘선행자소’라는 용어로 정의 내리고 있다. 노명희(1997)에서는 ‘접두 기능소’로 정의 내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접두 파생 한자어를 설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 중에서 노명희(1997)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명희(1997)의 연구에서는 접두 파생 한자어의 특성을 제시하여 접두 파생 한자어를 판별하고자 하였고, 접두 파생 한자어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했다. 접두 파생 한자어의 특성으로 첫째, 접두 파생 한자어는 형태적으로 자립성이 없으며, 그 자체로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 둘째, ‘관형자+명사’의 구성에서 부정(否定)의 예를 제외하면 별다른 제약이 없다. 셋째, 일부 예(신공항→신 국제공항 등)를 제외하면 단어의 내적 확대가 불가능하다. 넷째, 접두 파생 한자어와 직접 결합되는 어기에 대해서만 의미가 작용한다. 다섯째, 접두 파생 한자어가 다른 접두 파생 한자어로 대치 가능(신개발→재개발: 특별한 의미적 제약을 보이지 않는 경우 대치가 가능하다)하다. 여섯째, 반의어쌍(대규모:소규모, 고농도:저농도)이 존재한다. 즉 접두 파생 한자어는 형태적으로 의존성

10) 마숙홍(2004:P18) 재인용

을 지니며 일부 예를 제외하면 내적 확대가 불가능하고, 접두사의 수식 범위가 그 단어에만 한정된다는 면에서는 접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특별한 선택 제약 없이 생산적으로 결합되며, 대응하는 반의어쌍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관형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접두사에서 관형사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보고자 하였다. 접두 파생 한자어의 유형으로는 관형사와 비슷한 접두 파생 한자어와 부정의미 접두 한자어 그리고 서술적 용법을 지니는 접두 파생 한자어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관형사와 비슷한 접두 파생 한자어로 ‘高-, 超-, 新-, 廢-’를 설정하였고, 부정의미 접두 파생 한자어로 ‘無-, 不-, 未-, 非-, 沒-’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술적 용법을 지닌 접두 파생 한자어로 ‘反-, 親-, 脫-, 對-’를 설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노명희(1997)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접두 파생 한자어’를 단음절로 구성된 한자어로 혼자 독립해서 쓸 수 없고, 결합하는 여기에 의존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3.1.2.2 접미 파생 한자어

접미 파생 한자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같은 의견을 보인다. 하지만 접미 파생 한자어 목록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 한다. 접미 파생 한자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최현배(1989)에서는 ‘인(人), 가(家), 자(者), 사(事), 원(員), 부(夫), 자(子), 공(工), 화(化), 적(的)’등을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익섭(1968)에서는 ‘적(的), 자(者)’를 , 고영근(1974)에서는 ‘간(間), 식(式), 중(中)’을, 고영근·남기삼(1985)에서는 인명 뒤에 붙는 ‘군(君), 가(哥), 씨(氏), 녀(女), 사(士)’

등을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다(마숙홍, 2004:21)¹¹⁾.

연구자들마다 접미 한자어를 설정함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다만 접미 파생 한자어의 목록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접미 파생 한자어가 존재한다고 설정하고 한자어에 대해 살펴보겠다.

3.2. 합성 한자어

일반적으로 합성 한자어는 어기와 어기가 어울려 새 단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합성 한자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다.

3.2.1 합성 한자어의 개념

일반적으로 합성 한자어란 ‘굴절 접사를 제외한 부분이 둘 이상의 어기로 이루어진 단어’라 정의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기(단어, 어간, 어근의 총칭)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동일한 부분이 달리 분류된다는 것이다.

정원수(1990)는 이익섭(1968)의 어간이 경우에 따라서 단어일 수도 있고 단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애매한 정의를 분명히 밝혀주기 위해 어간을 동사(형용사 포함)의 비활용부에 한정시키고 있다.

어근	굴절접미사인 활용어미가 연결될 수 있거나 파생접미사가 연결될 수 있는 구속형식으로서 용언의 비활용부
어간	접미사와 결코 직접 결합되지 않는 구속형식으로서 단어의 의미 중심부

11) 마숙홍(2004:P21) 재인용

어기	단어, 어간, 어근을 총칭하며 단어형성의 바탕을 이루는 의미 중심부
----	---------------------------------------

이와 같은 정의에 입각하여 정원수(1990)는 합성 한자어를 ‘굴절 접미사를 제외한 부분의 직접구성요소(IC)가 모두 어기이거나 그보다 큰 언어형식인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김규철(1997)의 지적대로 한자어에서는 고유어처럼 어미가 첨가되지 않으므로 ‘그보다 큰 언어형식’은 한자 복합 한자어를 다루는데 불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기존의 정원수(1990)의 개념을 바탕으로 어기라는 개념을 어간과 어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3.2.2 합성 한자어의 유형

합성 한자어의 유형에 대해 김정은(1997)에서는 합성 한자어의 유형을 ‘병렬구성 합성어, 종속구성 합성어, 서술구성 합성어, 반복구성 합성어, 축약구성 합성어’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병렬구성 합성어와 반복구성 합성어는 한자어를 형태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종속구성 합성어와 서술구성 합성어는 한자어를 통사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형태적 측면에서의 합성 한자어 유형과 통사적 측면에서의 합성 한자어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병렬구성 합성어와 반복구성 합성어, 축약구성 합성어를 형태적 측면으로, 종속구성 합성어와 서술구성 합성어는 한자어를 통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3.2.2.1 형태적 구성 합성 한자어

형태적 측면에서 형태적 구성 합성 한자어는 병렬구성 합성어와 반복구성

합성어를 포함하며, 이는 ‘한자어+한자어’ 결합의 유의 구성, 대립 구성, 대등 구성, 중첩 구성¹²⁾과 ‘한자어+고유어’의 혼성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의 구성은 한자어가 명사와 명사, 동사와 동사, 형용사와 형용사, 부사와 부사로 앞뒤 단어의 의미가 동의어나 유의어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예를 들면 ‘가격(價値), 언어(言語), 도로(道路)’ 등이 명사와 명사의 유의 구성이고, ‘교육(敎育), 개발(開發), 고발(告發)’ 등은 동사와 동사의 유의 구성이다. ‘명백(明白), 행복(幸福), 거대(巨大)’ 등은 형용사와 형용사의 유의 구성이며, ‘하필(何必), 항상(恒常)’ 등은 부사와 부사의 유의 구성이다.

둘째, 대립 구성은 한자어가 명사와 명사, 동사와 동사, 형용사와 형용사, 부사와 부사로 앞뒤 단어의 의미가 대립어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예를 들면 ‘공사(公私), 상하(上下), 형제(兄弟), 천지(天地)’ 등은 명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대립 구성이고, ‘거래(去來), 득실(得失), 문답(問答)’ 등은 동사와 동사의 대립 구성이다. ‘노소(老少), 다소(多少), 강약(強弱)’은 형용사와 형용사의 대립 구성이고, ‘고금(古今), 피차(彼此)’ 등은 부사와 부사의 대립 구성이다.

셋째, 대등 구성은 한자어가 명사와 명사, 동사와 동사, 형용사와 형용사, 부사와 부사로 앞뒤 단어의 의미가 대등어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예를 들면 ‘가무(歌舞), 근간(根幹), 가문(家門)’ 등이 명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대등 구성이며, ‘과거(過去), 교육(敎育), 발전(發展)’ 등은 동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대등 구성이다. ‘광대(廣大), 공백(空白), 귀애(貴愛)’ 등은 형용사 형용사로 이루어진 대등 구성이다.

12) 조범희(1998:P9~10) 참조.

넷째, 중첩 구성은 한자어가 동음자로 중복되어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때 ‘각각(各各), 가가(家家), 종종(種種)’처럼 하나의 한자가 중첩되)‘나타나)’경우와 ‘정정당당(正正堂堂), 명명백백(明明白白)’과 같이 두 개의 한자가 각각 중첩되어 나타나)’경우가 있다. 또한 ‘堂堂히, 層層이, 飜飜이’와 같이 고유어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중첩 구성이 있다.

다섯째, 혼성 구성은 ‘강물(江물), 건너편(건너便), 건너방(건너房), 까만색(까만色)’처럼 ‘한자어기와 고유어, 고유어와 한자어기’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¹³⁾이다. 혼성 구성은 김규철(1997)에서는 단지 ‘한자어기와 고유어, 고유어와 한자어기’의 결합으로 보았는데 본고에서는 ‘한자어기와 외래어, 외래어와 한자어기’도 포함¹⁴⁾하고자 한다. 이는 ‘시외버스(市外bus), 고속버스(高速bus), 금메달(金medal), 비닐봉지(vinly封紙)’처럼 소수이지만 ‘한자어기와 고유어, 고유어와 한자어기’ 결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상 형태적 측면에서 합성 한자어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한자어의 형태적 구성

구성	세부구성	설명 · 예시
----	------	---------

13) 김규철(1997:P268) 단어형성의 하위분류 참조

14) 조남호(2003)의 목록을 보면, ‘시외버스(市外bus), 고속버스(高速bus), 금메달(金medal), 비닐봉지(vinly封紙)’와 같이 ‘한자어기+외래어’, ‘외래어+한자어기’의 설정을 보이는 단어를 한자어 학습용 어휘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교육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평가용 어휘 목록을 살펴보면 ‘금메달(金medal)’이 어휘 목록 안에 들어 있다. 이에 혼성구성이란 한자어 합성어를 설정하고자 한다.

형태적 구성	유의구성	한자어의 앞뒤 단어의 의미가 동의어나 유의어로 이루어진 단어
		가격(價値), 교육(敎育), 명백(明白),
	대립구성	한자어의 앞뒤 단어의 의미가 대립어로 이루어진 단어
		상하(上下), 거래(去來), 노소(老少)
	대등구성	한자어의 앞뒤 단어의 의미가 대등어로 이루어진 단어
		가무(歌舞), 과거(過去), 광대(廣大)
	중첩구성	한자어가 동음자로 중복되어 이루어진 단어
		각각(各各), 정정당당(正正堂堂),堂堂히(堂堂히)
	혼성구성	한자어가 고유어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
		강물(江물), 건너편(건너便), 건너방(건너房)

3.2.2.2 통사적 구성 합성 한자어

통사적 측면에서 한자어 구성이란 두 자 이상의 한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었을 때에 그 한자어 속에 있는 개개의 한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통사적 측면에서 통사적 구성 합성 한자어는 종속구성 합성어와 서술구성 합성어를 포함하며, 이는 크게 주술 관계, 술목관계, 술보관계, 수식관계¹⁵⁾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술관계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서술하는 행위, 동작, 상황 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일출(日出)’에서 ‘일(日)’은 주어로 사용되고, ‘출(出)’은 서술어로 사용되어 ‘해가 뜨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술목관계는 서술어와 목적어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서술어는

15) 조범희(1998:P10~11) 참조.

행위나 동작을 나타내고, 목적어는 대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졸업(卒業)’에서 ‘졸(卒)’은 ‘마치다’라는 서술어로, ‘업(業)’은 ‘학업’이라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사용되어 ‘학업을 마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술보관계는 서술어와 보어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서술어는 행위나 동작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어를 도와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한(有限)’에서 유(有)는 ‘있다’로, ‘한(限)’은 ‘한하다’로 ‘한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넷째, 수식관계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명사류를 수식하는 것과 동사류를 수식하는 것이 있다. 명사류를 수식하는 것은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예를 들면, ‘미인(美人)’에서 ‘미(美)’는 ‘아름답다’, ‘인(人)’은 ‘사람’으로 ‘미(美)’가 관형어로 쓰여,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동사류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어가 용언을 한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예를 들면, ‘급증(急增)’에서 ‘급(急)’은 ‘급히’, ‘증(增)’은 ‘증가하다’로 ‘급히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상 통사적 측면에서 한자어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한자어의 통사적 구성

구성	세부구성	설명 · 예시
통사적 구성	주술관계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 일출(日出): 일(주어) + 출(서술어)
	술목관계	서술어와 목적어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

	술보관계	졸업(卒業): 졸(서술어) + 업(대상)
		서술어와 보어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
		유한(有限): 유(서술어) + 한(보어)
	수식관계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
		-미인(美人): 미(관형어) + 인(체언)
		-급증(急增): 급(부사어) + 증(용언)

II장에서는 교육용 한자어 선정을 위한 한자어 구성에 대한 고찰로 한자어의 개념·구성·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자어를 단일어, 파생 한자어, 합성 한자어로 분류하고, 파생 한자어와 합성 한자어를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5>과 같다.

<표5> 한자어의 구성

한자어 분류	구성	보기
단일어	일음절 한자어	산(山), 강(江), 책(冊) 등
	이음절 한자어	포도(葡萄), 산호(珊瑚), 모순(矛盾) 등
파생 한자어	접두 파생 한자어	무의미(無意味), 불가능(不可能) 등
	접미 파생 한자어	미술가(美術家), 저자(著者) 등
합성 한자어	병렬구성 한자어	언어(言語), 상하(上下), 근간(根幹) 등
	통사적구성 한자어	일출(日出), 졸업(卒業), 유한(有限) 등

II장에서는 한자어의 개념과 구성 그리고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자어의 구성과 형태를 살펴 한자어를 분류한 이유는 한자어 교육을 위한 방안과의 연계 필요성 때문이다. 또한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를 선정하고, 그 등급을 제시할 때 한자어의 구성은 전문적 지식보다 교육의 수월성 부분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Ⅲ.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선정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근거로 하여 한국어 교재를 구성할 수도 있고, 교육에 필요한 어휘 항목과 학습 범위를 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통일된 안이 없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의 선정 기준을 검토하여 학습용 한자어 선정을 위한 어휘 목록을 선정해 보려고 한다.

1.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1.1 선행 연구에서의 교육용 한자어 선정 기준 및 방법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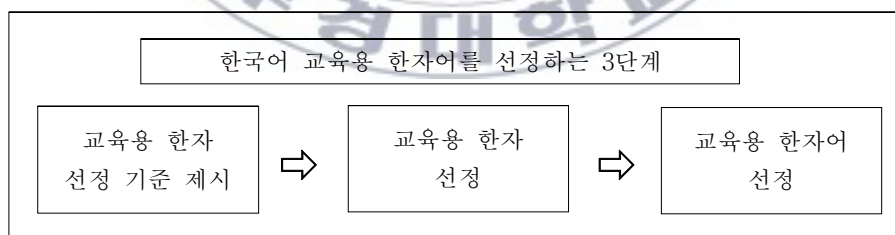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해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기준과 선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과 관련한 연구는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손연자(1984), 정승혜(1998),

강현화·김창구(2001), 김지형(2003), 문금현(2003), 한재영(2003), 김정남(2005), 오수진(2005), 김현정(2008), 이영희(2008), 이혜영(2008), 김광미(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중 손연자(1998), 강현화·김창구(2001), 김지형(2003), 문금현(2003), 한재영(2003), 김정남(2005), 이혜영(2008)의 연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용 한자 선정에 관한 것이며, 오수진(2005), 김현정(2008), 이영희(2008), 김광미(2009)의 연구는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육용 한자어 선정과 교육 방안에 관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수진(2005), 김현정(2008), 이영희(2008), 김광미(2009)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¹⁶⁾에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과정 및 방법이 비슷했다.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어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교육용 한자를 중심으로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단계



<표6>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단계가 3단계임을

16) 교육용 한자어에 관한 선행 연구 중 오수진(2005)의 연구 한자어 선정 과정이 기존의 다른 선행 연구와 달랐다. 오수진(2005)의 경우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고 한자어를 선정하는 방법이 아닌 한자어의 빈도수와 한자어와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뜻이 일치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자어를 선정하고 있다.

알 수 있었다. 먼저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교육용 한자를 바탕으로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연구자들이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를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근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3단계를 중심으로 각각의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용 한자어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1·2단계인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1.1.1 한국어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

한국어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교육용 한자어 선정에 관련한 논문뿐만 아니라 교육용 한자 선정과 관련한 정승혜(1998), 강현화·김창구(2001), 김지형(2003), 문금현(2003), 한재영(2003), 김정남(2005)의 연구도 함께 살펴보았다.

<표7>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¹⁷⁾

선행연구	선정기준
정승혜 (1998)	1.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 2. 사용 범위가 넓은 한자 3. 교육에 기초적인 한자 4. 조어력이 높은 한자 5.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한자 6. 기존 한자 교재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한자
강현화·김창구	1. 교재에 실린 한자어의 조어력 분석을 통한 기초 한자를

(2001)	조사 반영 2. 실생활에서 학습자가 부딪치는 한자의 환경을 조사 반영 3. 생활에 필수적인 한자어 기초 어휘 중 한자 사용 실태 조사 반영
김지형 (2003)	1. 외국인 교육용 기본어휘에 포함된 한자어를 구성할 수 있는 글자 2. 조어력이 높은 한자 3. 1)과 2)의 조건에 맞지 않는 한자라도 고유어의 기초 어휘에 상응하는 한자 4. 기본 한자에 포함된 한자와 일정한 계열 관계를 이루는 한자
문금현 (2003)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이 아닌 교육용 한자어 선정 기준을 제시. 1. 한국인의 사용 빈도 2. 난이도 3. 기초 · 기본어휘 우선 순위 4. 구어와 문어의 조화
한재영 (2003)	1. 효율성 2. 사용 빈도 3. 활용 가능성 4. 개별 한자의 난이도
김정남 (2005)	『한국어 학습용 어휘목록』의 한자어에 포함된 한자의 조어력과 빈도순
김현정 (2008)	1. 기존 한자 교재의 한자 · 한자어 목록 간의 중복도가 높은 한자와 한자어 2. 한국어교육용 기초 어휘의 목록에 포함된 한자어 3. 한자어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조어력이 높은 한자 4. 한자 훈과 그 용례의 의미가 일치하는 한자와 한자어 5. 한국어 학습 단계에 알맞은 한자와 한자어
이영희 (2008)	1. 한국어교육용 어휘에 포함된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 2. 조어력이 높은 한자 3. 1음절 한자어를 구성하면서 대응 고유어가 없는 한자 4.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재에서 중복도가 높은 한자 5.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

	6. 한자 자체의 난이도(간단한 획수) 고려 7. 부수와 같이 다른 한자의 기초가 되는 한자 8.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한자
김광미 (2009)	기준 제시 없음

위의 <표7>은 선행 연구에서 교육용 한자 목록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이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와 조어력이 높은 한자 등 중복되는 점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김현정(2008)에서는 한자의 훈을, 이영희(2008)에서는 한자의 부수와 획수를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에서 주목할 점은 국어 교육에서의 교육 한자 선정 기준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주의란(2003)에서는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위한 지도 대상 한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1) 조어력이 높은 한자, (2)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 (3) 교육에 기초적인 한자, (4) 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난이도를 가진 한자를 제시하였다. 주의란(2003)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어력이 높은 한자,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 교육에 기초적인 한자’ 등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구자들의 기준과 같았다. 다만 ‘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난이도를 가진 한자’라는 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김현정(2008)에서의 ‘한국어 학습 단계에 알맞은 한자와 한자어’라는 기준과 비슷하다. 한자를 학습하는 대상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기준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이 같았다.

17) 이영희(2008) P86~87 참조하여 김현정(2008), 김영희(2008), 김광미(2009)의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을 추가하였다.

1.1.2 한국어 교육용 한자 선정 방법

앞서 살펴본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용 기초 한자를 선정하는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이 실제 교육용 한자 선정 과정 및 방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다.

<표8> 교육용 한자 선정 방법

선행연구	선정 방법
정승혜 (1998)	‘상용한자 2000자’에서 선정(구체적인 선정 과정 및 방법은 제시하지 않음)
강현화 · 김창구 (2001)	1. 현행 한국어 회화 교재 10종의 어휘 목록에서 3,284개의 한자어 추출 2. 교재간의 중복도와 교육용 말뭉치의 빈도를 이용하여 조어력이 높은 703개의 교육용 한자를 선정 3. 조어력이 18개 이상인 한자 69자 제시
김지형 (2003)	1. 서상규 외(1998)에서 5,963개의 한자어 추출 2. 한자의 조어력과 빈도를 이용하여 350개의 한자 선정 3. 기초어휘가 표시하는 개념의 유형적 분류, 고빈도자의 배치, 계열관계를 고려하여 기초어휘에 해당하는 글자 검토, 최종 어휘 선정 등의 4단계를 거쳐 기본한자 선정. 4. 기본한자의 수준에 따라 <한자1>, <한자2>로 등급 제시(한자1:163개, 한자2:169개 제시)
문금현 (2003)	1. 조남호(2003) ¹⁸⁾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난이도가 낮은 1·2단계의 한자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어 추출 2. 현행 한국어 회화 교재 5종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어 추출 3. 드라마 대본 등 구어 자료에서 많이 나오는 한자어 중 사용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한자어 선정 4. 1,2,3의 한자어 목록에서 공통 목록을 위주로 한자어를

	선정하여, 조남호(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등급 제시 5. 한자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 목록 제시
한재영 (2003)	1.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현대 한국어 사용 빈도 상위 10,000번째 안에 드는 어휘 중 한자어 추출 2. 한국어 회화 교재 3종의 어휘 목록에서 한자어 추출 3. 1,2의 비교를 통해 1,308개의 교육용 한자 선정 4. 선정된 목록을 한자능력검정의 배정한자 급수를 근거로 학습 단계 설정
김정남 (2005)	1.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3,310개의 한자어 추출 2.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빈도순 조사 3. 개별 한자의 빈도순에 따라 6단계의 학습용 기초 한자 제시
김현정 (2008)	1. 기존 한자 교재 5종에서 공통되는 한자 추출 2. 1의 한자 목록을 중심으로 훈 정리
이영희 (2008)	1.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 추출 2. 조어력이 높은 한자(조어력 순위 10까지의 한자)를 우선적으로 배열 3. 18종 한자 교재의 한자 중복도 산출⇒보조적 기준으로 제시 3. 2의 목록에서 넣어야 할 한자와 빼야 할 한자 제시
김광미 (2009)	선행 연구(이영희(2008), 김현정(2008), 박인선(2008))목록을 바탕으로, 3가지 선행연구에서 2번 이상 공통적으로 제시된 한자를 중복도가 높은 한자로 설정

위의 <표8>은 각각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교육용 한자 선정 과정 및 방

18) 국립국어 연구원(2003)

법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들마다 한자어를 추출하는 어휘 목록과 등급을 제시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과 교육용 한자 선정 과정 및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승혜(1998)에서는 구체적인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용 한자 선정 과정에서는 ‘상용한자 2000자’에서 한자를 선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선정 과정 및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강현화·김창구(2001)는 제시한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 중 첫 번째 조건인 ‘교재에 실린 한자어의 조어력 분석을 통한 기초 한자 조사’를 기준으로 교육용 한자 목록을 선정하였다. 김지형(2003)의 경우 제시한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에서 ‘외국어 교육용 기본어휘에 포함된 한자어를 구성하는 글자’와 ‘조어력이 높은 한자’ 등이 교육용 한자 선정 과정 및 방법에 잘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용 한자 선정 과정을 “기초어휘가 표시하는 개념의 유형적 분류, 고빈도자의 배치, 계열관계를 고려하여 기초어휘에 해당하는 글자 검토, 최종 어휘 선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영희(2008)의 경우 제시한 한자 선정 기준 중 한자의 조어력을 중심 기준으로 삼아 제시된 다른 기준과 비교를 통해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고 있었다. 비교적 제시한 선정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예외 사항¹⁹⁾을 두고 있어 제시한 한자 선정 기준과 등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1.3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분석

19) 1음절 한자어를 구성하면서 대응 고유어가 없는 한자를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1음절 한자어 중에서 모국어 화자들도 거의 고유어로 인식되는 한자들이면서, 한자로 출현하는 일이 드문 한자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교육용 한자 선정 기준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고유명사 59개와 한국인의 주요 성(姓)도 교육용 한자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한자 목록을 바탕으로 어떻게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 중에서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 있는 연구는 김현정(2008), 이영희(2008), 김광미(2009)등이 있다.

<표9> 교육용 한자어 선정 방법

선행연구	선정 방법
김현정 (2008)	1.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선정된 한자가 생성하는 한자어를 추출하여 조어력이 높은 한자어 분류 2. 한자어와 한자의 의미 관계 분석 3. 난이도 설정(해당 한자가 여러 학습 단계에 모두 출현하는 경우 해당 한자가 생성하는 한자어가 가장 많이 출현하는 단계를 기준으로 난이도 설정)
이영희 (2008)	구체적인 방안 없음
김광미 (2009)	선정된 한자가 사용된 한자어를 살펴 초급 학습자의 어휘 수준에서 제시할 한자어와 확장 가능한 한자어를 구분

김현정(2008)은 기존 한자 교재 5종에서 공통되는 한자를 추출하고 한자의 훈을 정리하였다. 이후 정리된 한자가 생성하는 한자어를 추출하기 위해 조남호(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을 사용하였다. 난이도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한자가 여러 학습 단계에 모두 출현하는 경우 해당 한자가 생성하는 한자어가 가장 많이 출현하는 단계를 기준으로 난이도를 설정할 것이다.(김현정, 2008:59)”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개별 한자가 생성하는 한자어가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한자의 등급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한자 등급의 기준이 되는 한자어의 기준은 별도의 논의 없이 조남호(2003)의 등급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이영희(2008)은 교육용 한자 한자 한기 위해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하지만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 다만, “한자어 학습을 위한 한자 선택반의 교수요목에 따른 것이며, 조어력이 높은 한자를 우선 배열되도록 하면서, 주제별 교수요목을 설정하여 개별 한자와 대표적인 교육용 한자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영희, 2008:92)”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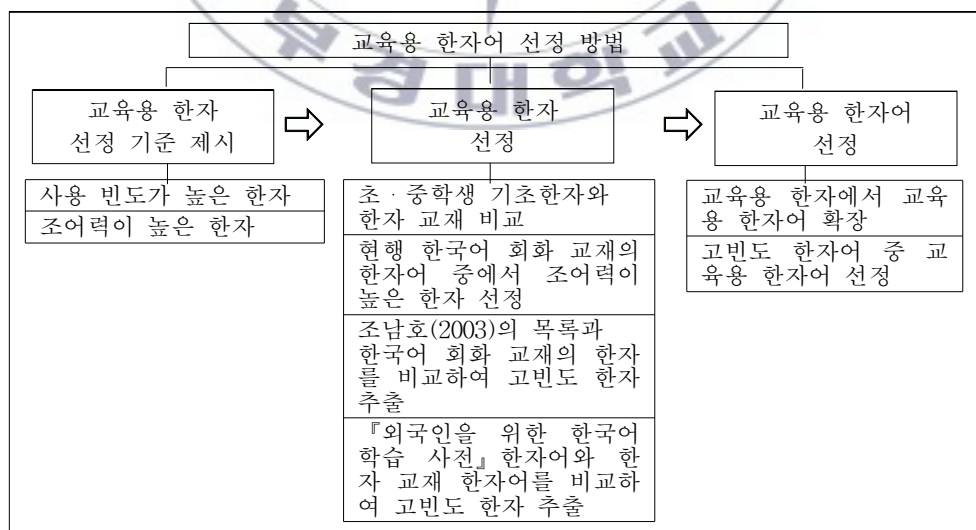
김광미(2009)는 선행 연구 목록을 바탕으로 중복도가 높은 한자를 설정하고, 선정된 한자가 사용된 한자어를 살펴 초급 학습자의 어휘 수준에서 제시할 한자어와 확장 가능한 한자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선정된 한자가 사용된 한자어를 살펴(김광미, 2009:36)”라고만 제시할 뿐 한자가 사용된 한자어의 목록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제시할 한자어와 확장 가능한 한자어로 구분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한자의 조어력과 빈도가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었는데 1) 초·중등학생을 위한 기초한자 및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참고하여 기존의 한자 교재와 비교, 2) 현행 한국어 회화 교재에 나오는 한자어를 추출하여 조어력이 높은 한자 선정, 3)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 실린 한자어와 현행 한국어 회화 교재에 실린 한자어를 비교하여 고빈도 한자 추출, 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 한자어를 추출하여 조어력이 높은 한자 선정하고, 이를 기존 한자교재의 중복도가 높은 한자와 비교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뉘었는데 1)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고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 2) 한자어의 빈도를 고려하여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1)의 방법으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 있고, 2)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오

수진(2005)의 연구가 전부였다. 오수진(2005)의 연구는 한자어의 빈도수뿐만 아니라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뜻이 한자어의 뜻과 일치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자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험(經驗), 공부(工夫), 기분(氣分), 미술관(美術館), 방송(放送), 사과(謝過), 소식(消息), 산책(散策), 환자(患者)’ 등과 같이 한자어와 개별 한자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한자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비한자권 초급 학습자의 경우 개별 한자의 뜻을 풀었을 때 한자어의 뜻과 일맥상통하거나 그 뜻을 추측할 수 있는 한자어를 제시해 주어 한자어에 대한 부담감을 없앨 수 있어야 한다(오수진, 2005:62).”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비한자문화권 초급학습자에게 학자 학습이라는 부담감을 안겨 줄 수 있다.

이상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3단계에 따라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10>과 같다.

<표10> 선행연구에서의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방법



선행연구의 한자어 선정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교육의 연구 경향이 아직은 한자어 교육이 아닌 한자 교육에 집중된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즉 한자 학습을 통해 한자어의 어휘력 신장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어 교육의 한자어 교육과 관련한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과 마찬가지로 한자 학습과 한자어 학습을 연계²⁰⁾해서 살펴보고 있다. 한자어 교육 시 한자 학습과 연계해서 교육하는 것은 한자어 교육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어휘 교육 측면에서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한자가 아닌 한자어이다.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고 개별 한자의 의미지도를 그려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먼저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 선정된 한자어를 학습자의 학습 단계에 따라 등급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의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 방안이 아닌 새로운 교육용 한자어 선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합리적 기준과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 및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1.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대표 어휘 선정 방안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에 앞서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대표 어휘 선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자어의 바탕을 한자로 두

20) 황정애(2001), 김선희(2003), 주의란(2003), 이원영(2004), 이용우(2005) 등에서 한문학습과 한자어 학습을 연계해서 살펴보고 있었다.

고 한자 학습을 통해 한자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한자어의 바탕을 한자 어휘 그 자체로 보고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한국어 교육용 어휘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먼저 한국어 교육용 어휘와 관련된 어휘의 개념을 살펴보고 후에 교육용 어휘 선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1.2.1 교육용 어휘의 개념

현재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와 관련된 어휘의 개념이 ‘기초어휘, 기본어휘, 교육용어휘’등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다. 교육용 어휘와 관련된 어휘의 개념을 ‘기초어휘, 기본어휘, 교육용어휘’로 분류한 연구로는 이충우(1994), 채영희(2003)가 있고, 기초어휘를 기본어휘 중 한정된 집합으로 보는 김광해(1993)의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용 어휘라는 개념으로 기초어휘와 기본어휘를 포괄하는 서상규 외(1998)의 연구가 있다.

먼저 이충우(1994)에서는 ‘기초어휘, 기본어휘, 교육용어휘’로 어휘를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의 하고 있다.

가. 기초어휘: 한정된 소수의 어휘 자료[어휘소]에 의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상 생활 각 영역에서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이들은 사회적 격변 영향이 적고, 차용어로의 침투도 적으며, 장시간 지나도 잔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계 언어 연구에 이용되며 언어 연대학 · 어휘 통계학적 연대 상징 등의 자료로 쓰인다. 기본 어휘로 쓰이기도 한다.

나. 기본어휘: 일상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이 상당수 있다. 이 공통 어휘 중,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기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이 기본 어휘는 약2,000~3,000어가 해당된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기본 어휘를 가르쳐 일상 생활에 필요한 어휘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인 학습에서는 학습용 기본어휘가 일상 생활 기본 어휘가 될 것이다. 학습용 기본 어휘는 기본 어휘와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다. 교육용어휘: 학습의 내용·목표가 되는 어휘를 교육용 어휘라 한다. 학습용 기본 어휘보다 좀더 폭이 넓은 것이 교육용 어휘이다. 따라서 기초 어휘, 기본 어휘에다 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되는 어휘, 교육을 위한 표현과 이해에 도구가 되는 어휘[교과 전문 어휘]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이충우, 1994:20-21).

이충우(1994)의 연구는 기초어휘와 기본어휘를 분류하고 있는데, ‘한정된 소수의 어휘 자료[어휘소]에 의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상생활 각 영역에서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선정된 것’을 기초어휘로,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을 기본어휘로 보고 있다. 즉, 일상생활 각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를 기초어휘로 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공통되는 언어를 기본어휘로 정의하였다.

김광해(1993)는 이충우(1994)의 연구에서 기초어휘와 기본어휘를 구분한 것과 달리 기초어휘를 기본어휘의 일종이라고 보았다. 기본어휘를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어휘의 집합으로서 이 단어들을 상호 조합하는 것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일

가능하도록 선정된 어휘(1993:45-56)”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상규 외(1998)에서는 ‘교육용 기본어휘’라는 개념으로 기초어휘와 기본어휘를 포괄하고 있다. 서상규 외(1998)에서는 기초어휘를 기본어휘라는 어휘와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김광해(1993)과 김종학(1995)의 논의를 들어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공시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계량적 분포(빈도수)의 분석에 따라 선정되는 기본어휘와 구분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방법론상으로 먼저 특성을 달리하는 것이다.(1998:11-12)”라고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초어휘의 개념 정의와 달리 기본어휘의 개념 정의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기본어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작품이나 또는 한정된 언어 사용 국면에서 몇 개인가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여러 층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어휘소의 집합을 가리킬 수 있다. 예컨대, 잡지라면 실용기사, 문예작품, 취미 등 게재되는 내용별로 층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작품 별로 층을 가상하는 일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여러 층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어휘의 집합이 기본 어휘라는 개념이다.

둘째는 좀 범위가 사용의 국면이 다양한 여러 영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영역의 전개를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의 집합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기본 어휘란 특정한 목적, 특정한 분야를 위한 ‘00기본 어휘’라는 식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생활 기본 어휘’, ‘학습 기본 어휘’처럼 사용될 수 있거나,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기본 어휘’, ‘중학교 수학 교육을 위한 기본 어휘’등처럼 ‘분야별 기본 어휘’라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서상규 외, 1998:12-13).

서상규 외(1998)의 기본 어휘에 대한 둘째 개념은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서상규 외(1998)의 기본어휘는 ‘특정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목록은 ‘한국어 교육용’이라는 특정 목적에 따라서 한자어를 선정하기 때문에 서상규 외(1998)의 기본 어휘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조현용(1999)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의 개념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기초어휘: 한 언어의 근간이 되는 어휘로 오랜 기간 동안에도 잘 변화되지 않는 인간 생활 속의 어휘이다.
- 나. 기본어휘: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조사·정리된 어휘 목록이다.
- 다. 1차어휘: 모국어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어휘로, 학습에 의한 2차 어휘와 구별 된다.
- 라. 교육용 어휘: 교육 또는 학습에 필요한 어휘이다.
- 마.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선정된 어휘로, 한국인의 의사 소통에 꼭 필요한 어휘이다(조현용,1999:56).

조현용(1999)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의 교육용 어휘와 관련된 어휘의 개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자신의 견해는 논하지 않았다.

채영희(2003)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의 개념에 따라 “기초어휘는 문화나 자연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중립적이며 차용어의 침투가 적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잔존 가능성이 큰 어휘라고 정의할 수 있다(2003:12)”고 기초어휘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초어휘와 기본어휘 그리고

교육용 어휘를 분류하였다.

가. 기초어휘: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자주 사용되며 조어력이 커서 2차 조어의 근간이 된다.

나. 기본어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로 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학습용 기본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다. 교육용어휘: 학습의 내용 목표가 되는 어휘. 학습용 기본어휘 보다는 그 폭이 넓은 것이다(채영희, 2003:12).

채영희(2003)에서는 기초어휘와 기본어휘를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학습에 필요한 어휘’라는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였다. 또한 교육용어휘 개념을 기본어휘보다 더 큰 개념으로 ‘학습의 내용 목표가 되는 어휘’라 정의하였다.

이상 교육용 어휘와 관련된 어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의 개념을 “한국어 한자어 학습의 목표가 되는 어휘로 기초 어휘와 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기본어휘”로 정의하겠다.

다음으로 서상규 외(1998), 조현용(2000), 김광해(2003)의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과정 및 방법 제시 등을 살펴보겠다.

1.2.2 교육용 어휘 선정 방법

앞서 한국어 교육용 어휘와 관련한 어휘 개념 정의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어휘 선정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과정 및 방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먼저 서상규 외(1998)은 5단계에 걸쳐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를 선정하였다. 1) “기본어휘”의 개념의 수립, 2)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어휘 빈도 조사, 3) 어휘의 분포와 단계의 분석, 4) 어휘 목록의 검증과 보완, 5) 한국어 교육의 단계(교과 과정)의 목표에 따라, 기본 어휘 구간과 목록을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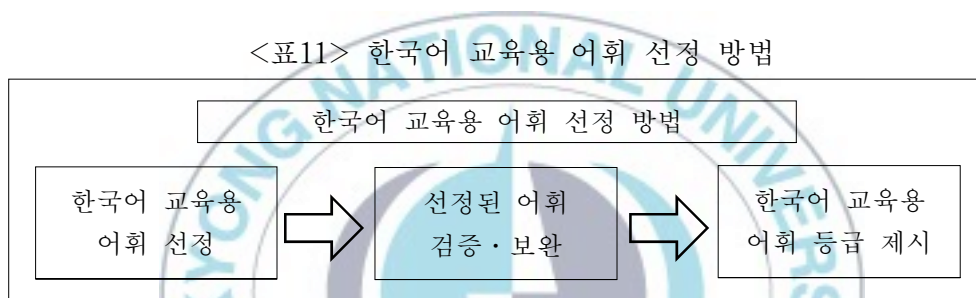
조현용(2000)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 구성방법, 기본어휘의 수에 대한 논의, 기본어휘의 내용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를 선정하였다. 먼저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를 구성하기 위해 서상규 외(1998)와 최길시(1998), 『연세대 교재 1,2급』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본어휘의 내용 측면을 고려하여 서상규 외(1998)와 최길시(1998), 『연세대 교재 1,2급』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휘 목록에서 연세대 교재 색인에 누락된 어휘, 분석 기준의 차이로 누락된 어휘, 체계의 빈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 생존에 필요한 어휘, 공식교육에 필요한 어휘, 기본적인 문화 어휘 등을 추가하여 총 725개의 기본 어휘를 선정하고 이를 품사별로 정리하였다.

김광해(2003)는 총 어휘 선정과 어휘 평정 2단계를 거쳐서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고 등급화하고 있다. 먼저 총 어휘를 선정하기 위해 메타 계량 방법²¹⁾을 사용하였다. 14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한 계량 결과를 모아 한번 이상 등장한 어휘소들을 목록을 만들었다. 그 다음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와 비교하여 기존 자료의 누락 어휘를 수습하였다. 교육용 어

21) 김광해(2003:22)에서는 메타 계량 방법을 “더 높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상된 것으로서, 직접 말뭉치를 계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량 처리된 자료들을 충분히 구하여 그 분포 상황과 자료의 타당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비교함으로써 중요도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휘가 선정된 다음에는 어휘의 중요도 판정과 더불어 자료의 타당도를 함께 고려하여 순의를 정하는 피봇방식을 이용하여 초급·중급·상급·고급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하나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즉,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고, 선정된 어휘를 검증·보완하였다. 이후 선정된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는 <표11>과 같은 단계를 보이고 있다.



이상 한국어 교육용 어휘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어휘의 개념과 교육용 어휘 선정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의 개념을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선정된 어휘로, 기초 어휘, 기본 어휘에다 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되는 어휘”로 정의하고,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방안을 활용 하겠다.

1.3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

본고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에 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두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자 한다.

1단계: 총 어휘 목록 선정

(서상규(1998), 조현용(2000),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목록을 대상으로 총 어휘 목록 선정)

2단계: 선정된 어휘 검증·보완

(선정된 어휘 목록 중에서 누락된 어휘 수습)

3단계: 선정된 어휘 등급 제시

1.3.1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총 어휘 목록 선정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총 어휘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 서상규 외(1998), 조현용(2000),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목록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목록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의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목록이 아닌 서상규 외(1998), 조현용(2000),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목록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자어를 산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는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어휘이다. 한자에서 한자어로 어휘를 확장하는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선행연구의 목록은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서상규 외(1998), 조현용(2000),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목록은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만든 공식적인 자료이며 어휘의 빈도수와 난이도 별로 그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기에 한자어 총 어휘 목록 선정 시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서상규 외(1998), 조현용(2000),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목록을 대상으로 공통되는 어휘를 조사하여 총 어휘 목록을 작성하겠다. 서상규 외(1998), 조현용(2000),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서상규 외(1998), 조현용(2000), 김광해(2003), 조남호(2003) 공통 한자어

▶ 감탄사

정말

▶ 고유 명사

한국

▶ 관형사

전(全), 전(前), 주(主), 천(千)

▶ 동사

감사하다, 도착하다, 변하다, 시작하다, 전하다, 정리하다, 주의하다,

▶ 명사

가족, 강, 거리, 건강, 건물, 검사, 겁, 결혼, 경제, 경찰서, 계단, 계산, 고등학교, 공기, 공책, 공항, 교과서, 교수, 교실, 교회, 국민, 근처, 기계, 기도, 기술, 기차, 남자, 남편, 내일, 노력, 대답, 대사관, 대학, 대학교, 대학생, 대화, 택, 도서관, 도시, 동네, 모양, 모자, 문, 문제, 문화, 물건, 발음, 방문, 방학, 백화점, 벽, 병, 병원, 복도, 부모, 부인, 부자, 부탁, 비행기, 사과, 사용, 사전, 산, 상, 상처, 색, 생선, 선물, 선수, 설명, 성격, 세계, 소개, 소설, 소식, 소품, 수업, 숙제, 시, 시간, 시계, 시내,

시작, 시장, 시험, 식당, 식사, 신문, 실례, 약, 약국, 약속, 양식, 여권, 여자, 여행, 역, 역사, 연극, 연습, 연필, 영어, 영화, 오후, 외국, 우산, 운동, 월요일, 위, 은행, 음식, 음악, 의사, 의자, 이번, 이사, 이유, 인사, 인상, 일요일, 자동차, 잡지, 장소, 전기, 전화, 점심, 정말, 정신, 주소, 주인, 준비, 중간, 지각, 지도, 지방, 지하철, 직업, 질문, 차, 창문, 책, 책상, 주식, 층, 친구, 침대, 평화, 표, 학교, 학생, 한국, 한국어, 한자, 행복, 형, 형제, 화장실, 환자, 회사, 후

▶ 수사

구, 만, 백, 사, 삼, 십, 억, 오, 육, 이, 일, 천, 칠, 팔

▶ 의존명사

개, 권, 년, 도, 번, 장

▶ 형용사

감사하다, 조심하다, 간단하다, 급하다, 부족하다, 위험하다

서상규 외(1998), 조현용(2000),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목록에서 공통되는 한자어를 산출하였다. 네 자료에서 공통되는 한자어는 총 200개로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이는 조현용(2000)의 연구에서 선정한 한국어 교육용 어휘의 수가 725개로 그 수가 작기 때문이다. 서상규 외(1998), 조현용(2000),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목록에서 총 200개의 공통되는 한자어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에 그 어휘수가 작다. 이에 조현용(2000)을 제외한 서상규 외(1998),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목록에서 총 1854개의 공통되는 한자어를 산출하였다. 서상규 외(1998),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에서 산출한 한자어를 품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상규 외(1998),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공통 한자어

▶ 감탄사

정말

▶ 고유명사

고구려, 고려, 백제, 북한, 신라, 조선, 한국, 한반도

▶ 관형사

각(各), 단(單), 동(同), 만(萬), 모(某), 백(百), 별(別), 본(本), 수십(數十), 약(約), 양(兩), 전(全), 전(前), 주(主), 천(千), 현(現)

▶ 대명사

그녀, 당신, 모(某), 자기, 저편

▶ 동사

담당하다, 답하다, 당황하다, 대답하다, 대비하다, 대신하다, 대표하다, 대하다, 도달하다, 도망가다, 도망치다, 도착하다, 등장하다, 망하다, 면하다, 무시하다, 반대하다, 반영하다, 반하다, 발견되다, 발견하다, 발달되다, 발달하다, 발생하다, 발음하다, 발전되다, 발전하다, 발표되다, 발표하다, 발휘하다, 방문하다, 변하다, 변화하다, 병들다, 보고하다, 보이다, 보이다, 보장하다, 보호하다, 부정하다, 부탁하다, 분석하다, 불구하다, 비교하다, 비판하다, 비하다, 사용되다, 사용하다, 상상하다, 상하다, 생산하다, 생활하다, 선언하다, 선택하다, 설명하다, 설치되다, 설치하다, 성공하다, 성립되다, 성립하다, 선장하다, 소개되다, 소개하다, 소유하다, 속하다, 수행하다, 시도하다, 시작되다, 시작하다, 실시되다, 실시하다, 실천하다, 실패하다, 실현하다, 안심하다, 안정되다, 약속하다, 연결되다, 연구하다, 예상하다, 완성되다, 외면하다, 요구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운영하다, 운하다, 위로하다, 위하다, 유지하다,

의논하다, 의미하다, 의식하다, 의심하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의하다, 이용되다, 이용하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인정되다, 인정하다, 일치하다, 자극하다, 작성하다, 작용하다, 적용되다, 적용하다, 전개되다, 전개하다, 전달하다, 전하다, 접근하다, 접하다, 정리하다, 정하다, 제거하다, 제공하다, 제시하다, 제외하다, 제출하다, 조사하다, 조심하다, 존경하다, 존재하다, 존중하다, 졸업하다, 주의하다, 주장하다, 준비하다, 증가하다, 증명하다, 지배하다, 지불하다, 지시하다, 지적하다, 진행되다, 짐작하다, 참가하다, 참석하다, 참여하다, 창조하다, 청하다, 추진하다, 출근하다, 출발하다, 취하다(取-), 택하다, 토하다, 통과하다, 통하다, 파악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표시하다(標示-), 표현되다, 표현하다, 피하다, 한하다, 합치다, 합하다, 해결되다, 해결하다, 해당되다, 해당하다, 해석하다, 행동하다, 행하다, 향하다, 허락하다, 하용하다, 형성되다, 형성하다, 확대되다, 확인하다, 활동하다, 활용하다, 회복하다, 후회하다, 흥분하다

▶ 명사

가격, 가구(家具), 가능성, 가사, 가수, 가장, 가정(家庭), 가족, 가짜, 가치, 가치관, 각각, 각국, 각오, 각자, 각종, 간, 간격, 간부, 간판, 갈등, 감, 감각, 감독, 감동, 감사, 감상, 감옥, 감정, 강, 강도(強度), 강도(強盜), 강물, 강의, 강제, 개선, 개성, 개인, 개인적, 객관적, 거리, 거실, 건강, 건너편, 건물, 건설, 건축, 검사(檢査), 검사(檢事), 검토, 겁, 견해, 결과, 결국, 결론, 결심, 결정, 결혼, 결혼식, 경계, 경기(景氣), 경기(競技), 경력, 경비, 경영, 경우, 경쟁, 경제, 경제력, 경찰, 경찰관, 경찰서, 경향, 경험, 계곡, 계단, 계산, 계약, 계절, 계층, 계획, 고객, 고급, 고등학교, 고모, 고민, 고생, 고장, 고전, 고집, 고통, 고향, 곡, 곡식, 공간, 공격, 공공, 공군, 공급, 공기(空器), 공기(空氣), 공동, 공무원, 공부, 공사, 공식, 공업, 공연, 공원, 공장, 공주, 공중, 공포, 과(科), 과(課), 과거(過去), 과거(科擧), 과자, 과장, 과정(過程), 과정(科程), 과제, 과학, 과학적, 관계, 관광, 관념, 관련, 관리(官吏), 관리(管理), 관습, 관심, 관점, 관찰, 광경, 광고, 광장, 교과서, 교사, 교수, 교실, 교양, 교육, 교장, 교통, 교환, 교회, 교훈, 구, 구별, 구분, 구성, 구속, 구역, 구조, 구체적, 국, 국가, 국기, 국내, 국민, 국어, 국제, 국회, 국회의원, 군(軍), 군(郡), 군대, 군사

(軍士), 군사(軍史), 군인, 권리, 권위, 귀신, 규모, 규정, 규칙, 균형, 그중, 극, 극장, 근거, 근로자, 근무, 근본, 근본적, 근원, 근육, 근처, 글자, 금, 금년, 금액, 급, 기(氣), 기(期), 기간, 기계, 기관, 기구, 기능, 기대, 기도, 기독교, 기록, 기본, 기본적, 기사(技士), 기사(記事), 기술, 기억, 기업, 기원, 기자, 기적, 기준, 기차, 기초, 기타, 기호, 기회, 기획, 긴장, 낙엽, 난리, 남(南), 남(男), 남녀, 남매, 남북, 남성, 남자, 남쪽, 남편, 내년, 내부, 내외, 내용, 내일, 노동, 노동자, 노력, 노인, 논리, 논문, 논쟁, 농담, 농민, 농부, 농사, 농업, 농촌, 뇌, 눈동자, 능력, 다방, 다수, 다행 단, 단계, 단어, 단위, 단지, 단체, 담당, 답, 당시, 당장, 대가, 대개, 대기, 대답, 대륙, 대문, 대부분, 대비, 대사(大使), 대사(臺詞), 대신, 대접, 대중, 대책, 대통령, 대표, 대표적, 대학, 대학생, 대화, 대회, 맥, 덕, 덕분, 도, 도구, 도덕, 도로, 도망, 도서관, 도시, 도입, 도장, 도전, 도중, 독립, 독서, 동기(同期), 동기(動機), 동네, 동료, 동물, 동시, 동양, 동의, 동작, 동전, 동쪽, 동포, 동화, 뒷산, 만세, 만약, 만일, 만점, 만족, 만화, 말투, 매력, 매일, 맥주, 면(面), 면(綿), 면적, 명령, 명예, 명칭, 모양, 모자, 목사, 목요일, 목욕, 목적, 목표, 무, 무기, 무대, 무리, 무역, 문, 문서, 문자, 문장, 문제, 문학, 문화, 물가, 물건, 물론, 물질, 물체, 미, 미래, 미소, 미술, 민간, 민족, 민주, 민주주의, 민주화, 박물관, 박사, 박수, 반(半), 반(班), 반대, 반면, 반성, 반응, 반장, 반지, 반찬, 발견, 발달, 발생, 발전(發展), 발전(發電), 발표, 밤중, 밥상, 방, 방면, 방문(訪問), 방문(房門), 방바닥, 방법, 방송, 방식, 방안, 방학, 방해, 방향, 배, 배경, 배우, 백성, 백화점, 번역, 번지, 번호, 별, 범위, 범인, 범죄, 법, 법률, 법원, 법적, 법칙, 벽, 변동, 변명, 변호사, 변화, 별명, 병(病), 병(瓶), 병원, 보고, 보고서, 보도, 보상, 보수(保守), 보수(補修), 보장, 보조, 보통, 보편적, 보험, 보호, 복, 복도, 본격적, 본래, 본부, 본성, 본인, 본질, 봉사, 봉투, 부(部), 부(富), 부근, 부담, 부대, 부동산, 부모, 부모님, 부문, 부부, 부분, 부상, 부인, 부자, 부장, 부정, 부족, 부처, 부친, 부탁, 북, 북쪽, 분노, 분석, 분야, 분위기, 불교, 불만, 불법, 불안, 불평, 불행, 비, 비교, 비극, 비난, 비명, 비밀, 비상, 비용, 비율, 비중, 비판, 비행기, 비행장, 서건, 사고(事故), 사고(思考), 사과(沙果), 사과(謝過), 사기, 사례, 사무, 사무실, 사물, 사방, 사상, 사실, 사업, 사용, 사용자, 사원, 사자, 사장, 사전(辭典), 사전(事前), 사정, 사진, 사회, 사회생활, 사회자, 사회적, 사회주의, 사회학, 산, 산업, 삼촌, 상

(上), 상(床), 상(賞), 상관, 상대, 상대방, 상대적, 상상, 상식, 상업, 상인, 상자, 상점, 상처, 상태, 상품, 상황, 색, 색깔, 생, 생기, 생명, 생산, 생선, 생일, 생활, 서구, 서류, 서부, 사양, 서쪽, 석유, 선, 선거, 선물, 선배, 선생, 선생님, 선수, 선전, 선택, 설명, 성(性), 성(姓), 성격, 성경, 성공, 정당, 성명, 성인, 성장, 성적(成績), 성적(性的), 성질, 세계, 세계관, 세계적, 세금, 세기, 세대, 세상, 세수, 세월, 소개, 소녀, 소년, 소득, 소망, 소문, 소비, 소비자, 소설, 소속, 소수, 소식, 소용, 소원, 소유, 소음, 소재, 소주, 속도, 손수건, 손자, 손해, 수, 수건, 수단, 수도, 수상, 수술, 수업, 수염, 수요, 수입(收入), 수입(輸入), 수준, 수출, 수학(修學), 수학(數學), 수화기, 숙제, 순간, 순간적, 순서, 순수, 술잔, 숫자, 습관, 승리, 승용차, 시(市), 시(試), 시각(時刻), 시각(視覺), 시간, 시계, 시기(時期), 시기(時機), 시내, 시대, 시도, 시민, 시선, 시설, 시야, 시어머니, 시위, 시인, 시작, 시장(市長), 시장(市場), 시절, 시점, 시중, 시집(媿-), 시집(詩集), 시험, 식구, 식당, 식량, 식물, 식사, 식탁, 식품, 신, 신경, 신고, 신념, 신랑, 신문, 신문사, 신부(新婦), 신부(神父), 신분, 신사, 신체, 신호, 신화, 실내, 실력, 실례, 실망, 실수, 실시, 실정, 실제, 실질적, 실천, 실제, 실패, 실험, 실현, 심리, 심사, 심장, 심정, 심판, 안, 안경, 안내, 안방, 안전, 안정, 안주, 암, 압력, 애인, 애정, 애초, 야단, 약, 약간, 약속, 약점, 양(羊), 양(量), 양복, 양식(洋食), 양식(樣式), 양심, 언론, 언어, 업무, 업종, 업체, 여, 여건, 여관, 여론, 여성, 여유, 여인, 여학생, 여행, 역(役), 역(驛), 역사, 역사적, 역할, 연관, 연구, 연극, 연기(延期), 연기(煙氣), 연락, 연설, 연속, 연습, 연애, 연장, 연주, 연필, 연합, 열, 열차, 염려, 영상, 영어, 영업, 영웅, 영향, 영향력, 영혼, 영화, 예, 예감, 예방, 예산, 예상, 예술, 예술가, 예외, 예의, 오락, 오전, 오해, 오후, 온도, 완전, 왕, 왕자, 외국, 외국인, 외부, 외출, 요구, 요리, 요청, 욕, 욕심, 용, 용기(容器), 용기(勇氣), 용서, 용어, 우려, 우산, 우송, 우유, 우정, 우주, 운, 운동, 운동장, 운명, 운전, 원고, 원래, 원인, 원장, 월급, 위, 위기, 위원, 위원장, 위치, 위험, 위협, 유교, 유리, 유리창, 유물, 유산, 유학(留學), 유학(儒學), 유형, 육군, 육체, 은, 은행, 음성, 음식, 음악, 의도, 의무, 의문, 의미, 의사(意思), 의사(醫師), 의식(意識), 의식(儀式), 의심, 의욕, 의원, 의자, 의지, 이내, 이념, 이동, 이모, 이번, 이사, 이상(以上), 이상(理想), 이상(異常), 이성, 이외, 이용, 이용자, 이유, 이익, 이자, 이전, 이중, 이하, 이해(利害), 이해(理解), 이

혼, 이후, 인, 인간, 인간성, 인간적, 인격, 인구, 인기, 인류, 인물, 인사(人事), 인사(人士), 인상, 인생, 인연, 인원, 인하, 일반, 일반적, 인부, 일상, 일생, 일요일, 일정, 일중, 일주일, 일체, 일행, 임금, 임무, 임시, 입구, 입장, 자, 자격, 자극, 자기, 자녀, 자동차, 자료, 자살, 자세, 자식, 자신(自身), 자신(自信), 자연, 자원, 자유, 자건거, 자존심, 자체, 작가, 작년, 작업, 작용, 작품, 잔, 잠시, 잡지, 장, 장관, 장군, 장기간, 장래, 장면, 장미, 장소, 장식, 재료, 재산, 채수, 재정, 재판, 저자, 저축, 적, 적극적, 전, 전개, 전국, 전기(前期), 전기(傳記), 전기(電氣), 전날, 전망, 전문, 전문가, 전반, 전부, 전선, 전설, 전시, 전자, 전쟁, 전체, 전체적, 전통, 전통적, 전화, 전환, 전후, 절, 절대, 절대적, 절망, 절반, 절차, 점, 점심, 접근, 정, 정기, 정당, 정도, 정리, 정말, 정면, 정문, 정보, 정부, 정상(正常), 정상(頂上), 정상적, 정성, 정식, 정신, 정신적, 정원, 정치, 정치인, 정치적, 제목, 제사, 제안, 계약, 제의, 제일, 제자, 제작, 제품, 제한, 조, 조각, 조건, 조사, 조상, 조정, 조직, 존재, 졸업, 종(種), 종(鐘), 종교, 종류, 종업원, 종일, 종합, 좌우, 죄, 죄인, 주, 주문(注文), 주문(呪文), 주민, 주변, 주부, 주사, 주소, 주식, 주요, 주위, 주의, 주인, 주인공, 주장, 주제, 주택, 죽, 준비, 중간, 중년, 중세, 중심, 중앙, 중요성, 중학교, 즉시, 증가, 증거, 증권, 증세, 지구, 지금, 지난번, 지대, 지도(地圖), 지도(指導), 지도자, 지방(地方), 지방(脂肪), 지시, 지식, 지식인, 지역, 지원, 지위, 지적(知的), 지적(指摘), 지점(支店), 지점(地點), 지지, 지출, 지하, 지혜, 직업, 직원, 직장, 진전, 직접, 직접적, 직후, 진리, 진실, 진심, 진짜, 진출, 진행, 질, 질문, 질병, 질서, 짐작, 집단, 집중, 차(茶), 차(車), 차량, 착각, 참여, 창, 창가, 창고, 창문, 창밖, 창작, 창조, 책, 책임, 책임자, 처녀, 처리, 처지, 천장, 천재, 철, 철도, 철학, 철학자, 청년, 청소, 청소년, 청춘, 체육, 체험, 초기, 초대(初代), 초대(招待), 초점, 총, 총각, 총장, 최고, 최근, 최대, 최선, 최소한, 최초, 최후, 추억, 축구, 출발, 출신, 출입, 출판사, 충격, 취미, 취직, 층, 치료, 치료법, 친구, 친절, 친절, 친척, 침대, 침묵, 청찬, 탁자, 탑, 태도, 태양, 토대, 토론, 토요일, 통, 통계, 통로, 통신, 통일, 통제, 통증, 통합, 통화(通貨), 통화(通話), 투자, 투표, 특별, 특성, 특수, 특징, 파도, 파출소, 판, 판단, 판매, 팔, 편지, 평, 평가, 평균, 평생, 평소, 평화, 폭, 폭력, 표(表), 표(票), 표면, 표시(表示), 표시(標示), 표정, 표준, 표현, 풍경, 풍속, 피로, 피부, 피해, 필연적, 필요, 필요성, 필자, 하, 학과, 학교, 학

년, 학생, 학습, 학원, 학자, 한(恨), 한(限), 한계, 한번, 한자, 한편, 합리적, 항의, 해, 해결, 해답, 해석(解析), 해석(解釋), 해외, 핵, 핵심, 행동, 행복, 행사(行使), 행사(行事), 행위, 향기, 향상, 현관, 현대, 현대인, 현상, 현실, 현실적, 현장, 현재, 협력, 형(兄), 형(型), 형님, 형사, 형성, 형수, 형식, 형제, 형태, 형편, 혜택, 호기심, 호랑이, 호수, 호주머니, 호흡, 홍수, 화가, 화면, 화장, 화장실, 화제, 화학, 확신, 확인, 환경, 환영, 환자, 활동, 회관, 회사, 회색, 회원, 회의(會議), 회의(懷疑), 회장, 회전, 효과, 효과적, 후, 후기, 후반, 후배, 후보, 후회, 훈련, 휴가, 흑인, 흔적, 흥미, 흥분, 희망, 희생

▶ 부사

가령, 각각, 각기, 각자, 간단히, 간신히, 간혹, 감히, 결코, 계속, 공연히, 과연, 굉장히, 극히, 금방, 급히, 내일, 내지, 다소, 다행히, 단순히, 단지, 당연히, 대강, 대개, 대체, 대체로, 도대체, 도저히, 매달, 매일, 무조건, 물론, 방금, 별로, 보통, 분명, 분명히, 불과, 사실, 사실상, 상당히, 서서히, 설사, 솔직히, 수없이, 실로, 실은, 실제, 약간, 여간, 여전히, 역시, 열심히, 영원히, 예컨대, 완전히, 우선, 우연히, 일단, 자세히, 자연히, 잠시, 장차, 적당히, 전부, 전혀, 절대, 절대로, 점차, 정말, 정말로, 정신없이, 정확히, 주로, 즉, 지극히, 지금, 직접, 진짜, 차차, 철저히, 충분히, 특별히, 특히, 하필, 한편, 항상, 현재, 혹시, 혹은, 확실히

▶ 수사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백, 천, 만, 억

▶ 의존명사

개, 개월, 건, 군, 권, 내, 년, 년대, 년도, 대(代), 대(臺), 도, 동, 등, 등등, 리, 말, 명, 박, 번, 법, 부, 석, 세(世), 세(歲), 시, 식, 씨, 양, 외, 월, 위, 이래, 자, 장, 점, 조(條), 조(組), 주, 주일, 중, 지경, 차, 척, 조, 총, 편, 평, 호, 회

▶ 형용사

가능하다, 간단하다. 감사하다. 강력하다, 강렬하다, 강하다, 거대하다, 건강하다, 건전하다, 고통스럽다, 곤란하다, 굉장하다, 귀중하다, 귀하다, 급하다, 다양하다, 다정하다, 단순하다, 당당하다, 당연하다, 독특하다, 독하다, 동일하다, 만족하다, 명확하다, 무의미하다, 미안하다, 밀접하다, 별다르다, 복잡하다, 부족하다, 분명하다, 불가능하다, 불가피하다, 불과하다, 불안하다, 불편하다, 불행하다, 상당하다, 선명하다, 성실하다, 소중하다, 솔직하다, 수많다, 순수하다, 심각하다, 심하다, 약하다, 어색하다, 억울하다, 영원하다, 완전하다, 용감하다, 우수하다, 우울하다, 위대하다, 위험하다, 유리하다, 유명하다, 유사하다, 이상하다, 일정하다, 자세하다, 자연스럽다, 자유롭다, 적당하다, 적절하다, 적합하다, 정직하다, 정확하다, 조심스럽다, 죄송하다, 중대하다, 중요하다, 진지하다, 진하다, 철저하다, 조조하다, 친절하다, 친하다, 침착하다, 투명하다, 특별하다, 특정하다, 편리하다, 편안하다, 편하다, 평범하다, 풍부하다, 피곤하다, 필요하다, 행복하다, 화려하다, 확실하다, 활발하다

이상이 서상규 외(1998), 김광혜(2003), 조남호(2003)의 공통되는 어휘 목록이다. 이 목록을 기초로 하여 한자어를 분석하였다. 한자어 분석은 II장에서 살펴본 한자어의 구성과 형태에 따라 살펴보았다.

먼저 선정된 목록을 한자어의 구성에서 살펴보겠다. 먼저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 대부분의 어휘가 생산성이 높은 어근에 ‘-되다, 하다’가 결합하여 이루어 한자어이다. 동사의 경우 총 227개의 어휘 중 ‘-하다’와 결합하는 어근은 190개이며, ‘-되다’와 결합하는 어근은 31개이다. 형용사의 경우 총 99개의 어휘 중 ‘-하다’와 결합하는 어근은 89개이며, ‘-되다’와 결합하는 어근은 없다. 부사의 경우 총 92개의 어휘 중 생산성이 높은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한자어와 생산성이 낮은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한자어가 30개이다. 합성어로 이루어진 경우는 41개이며, 고유어 접사가 아닌 한자어 접사로 형성된 파생 한자어는 이루어진 경우는 4개, 그

리고 단일어로 이루어진 한자어는 1개이다. 명사의 경우 총 1340개의 어휘가 선출되었는데 이를 한자어의 형태적 측면에서 단일어, 파생 한자어, 합성어로 살펴보았다. 명사 한자어 중 단일어는 114개이며, 파생 한자어는 88개, 그리고 합성어는 1138개이다.

이상 산출된 어휘 목록을 한자어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의 한자 어휘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한자 어근에 ‘-되다, 하다’가 결합하여 생성된 어근이 많았으며, 부사의 경우 생산성이 높거나 낮은 한자 어휘에 ‘-히’가 결합하여 형성된 어휘들이 다수 있었다. 명사의 경우 한자어의 형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산출된 어휘 중 합성 한자어가 제일 많았으며, 단일어, 파생 한자어 순으로 많았다. 파생 한자어의 경우 ‘대(大)-, 무(無)-, 불(不)-, 시(嫗)-’등의 접두 파생 한자어와 ‘-가(家-), 자(者), -적(的), -성(性), -화(化)’등의 접미 파생 한자어로 이루어진 파생 한자어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서상규 외(1998),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공통되는 어휘 목록을 산출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 자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어휘 빈도를 이용하여 한자어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어휘체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어휘가 누락되는 경우와 한국어 교육이라는 학습의 내용 목표가 되지 않는 어휘가 포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주일의 각 날을 이르는 어휘 중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빠져있다. 따라서 세 자료에서 공통되는 어휘를 검증하고 누락된 한자어를 보완하겠다.

1.3.2 선정된 어휘 검증 · 보완

앞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해 서상규 외(1998), 조현용

(2000),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목록에서 공통되는 한자어를 산출하였다. 네 자료에서 공통되는 한자어는 총 200개로 그 수가 작았다. 이에 조현용(2000)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자료에서 공통되는 한자어 1854개를 산출하였다. 세 자료에서 산출된 한자어 목록을 총 어휘 목록으로 보고, 총 어휘 목록을 검토하여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어휘 중 누락된 어휘를 보완하고, 그 중요성이 낮은 어휘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세 자료에서 산출된 어휘자료에서 검증·보완해야 할 어휘의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장을 기준으로 어휘체계의 빈 부분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보완²²⁾하겠다. 앞서 제시한 총 어휘 목록을 보면 일주일의 각 날을 이르는 어휘뿐만 아니라 친족어에 해당하는 어휘 중에서 ‘고모, 삼촌, 이모’는 있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과 같은 어휘는 빠져 있다. 또한 색채어 중에는 ‘회색’은 있는데 나머지 어휘는 없다. 조남호(2003)에서는 ‘갈색, 검은색, 검정색, 까만색, 노란색, 녹색, 밤색,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연두색, 초록색, 파란색, 하얀색, 회색, 흰색’등 17개의 색채어가 나타난다. 이 중 ‘갈색, 녹색, 분홍색, 연두색, 초록색, 회색’은 ‘한자어+한자어’ 유형의 합성어에 해당하며, ‘검은색, 검정색, 까만색, 노란색, 밤색,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흰색’은 ‘고유어+한자어’ 유형의 혼성 합성어이다. 이 글에서는

22)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총 어휘 목록을 작성하고 어휘를 검증·검증하는 단계에서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광해(2003)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여 누락된 어휘를 수습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조현용(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장을 기준으로 누락된 어휘를 수습하는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이는 김광해(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여 누락된 한자어를 수습하는 방법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50만에 달하는 표제어가 실려 있으며, 이 중에는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유어+한자어’ 유형의 혼성 합성어에 해당하는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흰색’을 색채어로 교육용 한자어 목록에 보완하겠다.

둘째, 선정된 어휘 목록을 살펴보면 ‘구성-구성되다-구성하다’와 같은 어휘 목록들이 다수 보인다. 이는 II장 예비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이라는 생산성이 높은 어근에 ‘-되다, -하다’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 것이다. 이에 서상규 외(1998), 김광해(2003), 조남호(2003)를 재검토하여 생산성이 높은 어근과 ‘-되다, -하다’가 결합하여 생성된 한자어를 교육용 한자어 목록에 보완하겠다. ‘확대되다’처럼 ‘확대’라는 생산성이 높은 어근이 생략된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은 어근을 교육용 한자어 목록에 보완하겠다. 아울러 접미 파생 한자어나 접두 파생 한자어가 붙어 형성된 어휘 중 어근이 생략된 경우에도 교육용 한자어 목록에 보완하겠다.

셋째, 총 어휘 목록에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는 ‘고구려, 백제, 북한, 신라, 조선, 한국, 한반도’ 등이 있다. 이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고유명사는 어휘의 사용 빈도가 낮지만 한국의 역사와 정치에 관련된 어휘이므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목록에 포함하겠다. 아울러 이 고유명사 목록에서 제외된 ‘남한’은 보완하겠다.

넷째, 총 어휘 목록에서 교실 수업과 관련된 어휘는 추가하겠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는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교실 수업과 관련한 어휘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관련한 어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총 어휘 목록을 살펴보면 ‘교과서, 학교, 대학생, 도서관, 방학, 사전, 수업, 숙제’ 등의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교실 수업과 관련하여 ‘결석, 복습, 예습, 연습, 출석, 칠판, 학생증’ 등의 어휘는 빠져 있다. 학교생활과 관

런해서는 ‘졸업, 졸업하다’는 어휘들이 포함되어있지만 ‘입학, 입학하다, 등록, 등록하다, 등록증’과 같은 어휘는 빠져 있다. 이렇듯 교실 수업과 학교 생활과 관련한 어휘 중 빠져 있는 어휘는 교육용 한자어 목록에 보완하겠다.

다섯째, 반의어쌍을 이루는 어휘 중 생략된 어휘는 추가하겠다. 앞서 제시한 총 어휘 목록을 살펴보면 ‘시어머니, 여학생, 왕, 출근, 출근하다’ 등의 어휘는 있는데 이 어휘들과 반의어 관계를 이루는 ‘시아버지, 남학생, 왕비, 퇴근, 퇴근하다’ 등의 어휘들은 빠져있다. 이렇듯 반의어쌍을 이루는 어휘 중 빠져 있는 어휘는 교육용 한자어 목록에 보완하겠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총 1989개의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였다. 이 어휘 목록을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를 위한 등급을 제시하겠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자어 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한국어 교육용 한자의 등급을 제시할 때 주로 말뭉치를 이용하여 고빈도어를 추출하고 교육을 위한 등급을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어휘의 빈도를 등급 설정의 기준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교육용 어휘 목록을 선정하고 등급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어휘의 빈도만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휘의 빈도가 높다고 해서 그 어휘가 교육적 중요도가 높은 어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용 한자어 목록의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휘의 빈도 이외에도 다른 기준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장을 달리해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등급 제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2.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등급 설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자어 교육을 위한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지만 단지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여 나열하는 것에서 논의가 끝난다면 그 교육용 한자어 목록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이유는 한자어 교재 개발과 한자어 교육 시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선정된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어휘의 등급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선정된 교육용 한자어 목록의 등급을 설정할 때 비로소 그 어휘 목록이 의미를 가지며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단어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자어의 등급을 설정하는 개인의 주관에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휘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을 설정한다고 해도 어휘의 중요도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이며, 이 등급이 절대적인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선정된 한자어 목록의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의 기준을 살펴보겠다.

2.1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등급 기준

한국어 한자어 목록을 설정하고 선정된 한자어를 등급화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의 하나가 바로 빈도이다. 선정된 한자어의 등급 설정 기준의 객관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한 방법으로 한자어의 빈도에 따라 고빈도와 저빈도 한자어를 나누어 등급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고빈도를 보이는 한자어는 그 조어력이 높고 활용성이 크기 때문에 저빈도를 보이는 한자어보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선

행 학습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는 무리가 있다. 빈도가 높은 한자어라고 해서 교육적 중요도가 높은 한자어라고 할 수 없고, 한국어 초급 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한자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 설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해 서상규 외(1998), 조현용(2000), 김광해(2003), 조남호(2003)의 목록을 참고하였다.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해 대상으로 한 네 자료 중에서 한자어의 등급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자료는 김광해(2003), 조남호(2003)뿐이다. 나머지 두 자료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거나 품사별로 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에 김광해(2003)와 조남호(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 선정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김광해(2003)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 등급 설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김광해(2003)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의 등급 설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등급 결정, 즉 어휘 평정 단계에서는 타당성이 높은 배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좀더 치밀하게 구성된 메타 계량 방법을 본격적으로 구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려한 변인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분포이며 다른 하나는 자료의 타당도이다. ‘분포’란 매우 자명한 것으로서 하나의 단어가 얼마나 많은 자료들에서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양적인 측면을 중요도 판정의 변인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 방식은 마치 하나하나의 단어들마다 과거 연구자들이 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사하여 다수결로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자료의 ‘타당도’란 우리가 입수한 연구물에 나타난 어휘 목록이 얼마나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질적인 측면의 변인이다.

(김광해, 2003:43)²³⁾

김광해(2003)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의 등급을 제시하기 위해 분포와 자료의 타당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인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을 절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휘의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 설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였고,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자료를 타당도를 밝히려고 하였다.

조남호(2003)는 국어 어휘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박지영, 이미예, 정명숙, 조항록, 조현선, 조현용 등의 선정 위원들에게 빈도 순위 10,352등(출현 빈도 15회 이상) 안에 든 단어를 제시하고 1단계 1,000개, 2단계 2,000개, 3단계 3,000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빈도 순위대로 A, B, C로 표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남은 것은 D로 표시하게 하였다. 선정 위원들은 이 초안을 가지고 A, B, C는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에 속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로, D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 단어로, E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어로 등급을 매겼다. 선정 위원들에 의해 등급을 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조남호(2003)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등급을 정하였다.

- 1) 4명 이상 E 등급: E+로 처리(1,783)
- 2) 4명 이상 D 등급: E+로 처리(162개)
- 3) 4명 이상 A 등급: A+로 처리(785개)
- 4) 3명 A 등급: A0로 처리(213개)
- 5) 3명 이상 B 등급: B+로 처리(1,385개)
- 6) 2명 이상 B 등급이고 2명 이상 C 등급: B+로 처리(615개)

23) 김광해(2003:P43) 재인용

- 7) 2명 이상 B 등급이고 1명 C 등급: B0로 처리(183개)
- 8) 3명 이상 C 등급: C+로 처리(2,013개)
- 9) 2명 또는 1명이 A 등급: B0로 처리(198개)
- 10) 2명 이상 B 등급: C0로 처리(24개)
- 11) 1명 B 등급이고 2명 또는 1명 C 등급: C0로 처리(474개)
- 12) 1명 B 등급: D+로 처리(129개)
- 13) 2명 C 등급: D+로 처리(701개)
- 14) 1명 C 등급: E+로 처리(957개)
- 15) 3명 D 등급이고 3명 E 등급: E+로 처리(730개) (조남호, 2003:5)

중간검토에서 고유명사와 같은 의미 영역에 속하는 단어²⁴⁾들을 재검토하였고, 최종검토에서는 자신의 어휘 목록과 조현용(2000)에서의 어휘 목록을 비교하였다. 또한 C 등급을 받은 어휘를 재검토하고, 고유명사 목록 전체를 재정리하였다. 조남호(2003)의 연구 역시 선정 위원들의 등급을 1차적으로 분석하여 등급 기준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C 등급을 받은 어휘 중에서 등급이 잘못 매겨진 단어를 추출하고, 고유명사를 재검토하여 등급을 조정하고 누락된 어휘를 추가하는 등 주관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2.2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용 한자어 등급

앞서 김광혜(2003)와 조남호(2003)의 연구를 통해 한자어 등급을 설정하

24) 조남호(2003)에서는 “요일을 나타내는 어휘 중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A+였지만 ‘화요일, 목요일’은 순위 10,352위에 들지 못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전체 요일명을 제시하여 요일명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유사한 어휘들을 재검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연구자 모두 어휘의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을 절충하였다. 김광해(2003)와 조남호(2003)에서 한자어 등급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을 절충하여 한자어 등급 설정 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으나 두 연구 모두 한자어의 빈도를 주된 기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자어의 빈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도가 높은 한자어라고 해서 교육적 중요도가 높은 한자어라고 할 수 없고, 한국어 초급 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한자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의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 한자어의 빈도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용 어휘의 개념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앞서 한국어 교육용 어휘와 관련된 어휘의 개념이 ‘기초어휘, 기본어휘, 교육용어휘’등으로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교육용 어휘와 관련된 어휘의 개념을 ‘기초어휘, 기본어휘, 교육용어휘’로 분류한 연구와 기초어휘를 기본어휘 중 한정된 집합으로 보는 연구, 그리고 교육용 어휘라는 개념으로 기초어휘와 기본어휘를 포괄하는 연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의 개념을 “한국어 한자어 학습의 목표가 되는 어휘로 기초 어휘, 기본 어휘에 다 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되는 어휘”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어휘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초어휘를 초급 어휘로, 기본어휘를 중급 어휘로, 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되는 어휘를 고급 어휘로 설정하겠다. 즉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조어력이 커서 2차 조어의 근간이 되는 어휘를 초급 어휘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로 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중급 어휘로, 학습의 내용 목표가 되는 어휘를 고급 어휘²⁵⁾로 살펴보겠다.

25) 채영희(2003:P376) 참조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인 방법으로 김광해(2003)과 조남호(2003)의 어휘 등급을 비교해서 등급을 설정한다. 김광해(2003)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에서 어휘의 분포도를 조사하여 등급을 설정하였고, 조남호(2003)에서는 6명의 선정 위원의 등급을 재조정하여 등급을 설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어휘의 등급을 제시하고 있는 김광해(2003)과 조남호(2003)의 목록을 비교하였다. 김광해(2003)에서는 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누고 있다. 1등급은 초급 어휘로, 2등급을 중급 어휘로, 3·4등급은 상급 어휘로, 그리고 5·6등급은 고급으로 나누었다. 조남호는 이와는 달리 A·B·C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A등급을 초급 어휘로, B등급을 중급 어휘로, C등급을 고급 어휘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김광해(2003)과 조남호(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을 살펴보면 등급 설정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ㄱ’에 해당하는 목록을 살펴보면 <표12>와 같다.

<표12> 두 자료의 등급 설정이 다른 경우

등급이 다른 경우			
한자어	초급	중급	고급
가능하다	K	N	
가령		K	N
가사		K	N
가정	K	N	
가치	K		N
각	K	N	
간단하다	K	N	
간신히		K	N
간판		K	N
갈등		K	N
감정	K	N	
강의		K	N

강의하다		K	N
강하다	K	N	
거대하다		K	N
건설		K	N
검사	K	N	
겹	K	N	
결과	K	N	
결국	K	N	
결석	K		N
계곡		K	N
계속	K	N	
계속하다	K	N	
고장	K	N	
공격		K	N
공기	K	N	
공연하다		K	N
과연		K	N
과학	K	N	
관계	K	N	
관심	K	N	
관한다	K	N	
광경		K	N
광장		K	N
평장하다		K	N
교사		K	N
교장		K	N
교환		K	N
구별		K	N
구하다	K	N	
국가	K	N	
국민	K	N	
국어	K	N	
국회		K	N
군사		K	N
권리		K	N
귀신		K	N
귀중하다		K	N
귀하다	K		N
근육		K	N
글자	K	N	
금	K	N	
금방	K	N	
급하다	K	N	
기계	K	N	N
기관	K		
기록	K		N

기사	K	N	
기술	K	N	
기억	K	N	
기업		K	N
기회	K	N	

(김광해의 등급은 K로 표시하고, 국립국어원의 등급은 N으로 표시하였다)

위의 <표12>를 살펴보면 김광해(2003)에서는 초급에 해당하는 어휘가 조남호(2003)에서는 중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두 자료의 어휘 등급이 다를 경우 빈도를 고려하여 등급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둘째, 주관적인 방법은 교육용 어휘 개념과 한자어 구성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겠다. 교육용 어휘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조어력이 커서 2차 조어의 근간이 되는 어휘를 초급 어휘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로 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중급 어휘로, 학습의 내용 목표가 되는 어휘를 고급 어휘로 보²⁶⁾겠다. 그리고 기초어휘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조어력이 커서 2차 조어의 근간이 되는 어휘이다. 교육용 어휘 개념을 바탕으로 초급·중급·고급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앞서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설정하고 II장의 한자어의 교육용 한자어 선정을 위한 한자어 구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명사의 목록을 살펴보았다. 동사와 형용사의 한자 어휘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한자 어근에 ‘-되다, 하다’가 결합하여 생성된 어근이 많았으며, 부사의 경우 생산성이 높거나 낮은 한자 어휘에 ‘-히’가 결합하여 형성된 어휘들이 다수 있었다. 명사의 경우 한자어의 형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산출된 어휘 중 합성 한자어가 제일 많았으며, 단일어, 파생 한자어 순으로 많았다. 파생 한자어의 경우 ‘대(大)-, 무(無)-, 불(不)-, 시(嫗)-’등의 접두

26) 채영희 외(2003:P12)에서는 한·일·중 3국의 한자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밝히고 있다.

파생 한자어와 ‘-가(家-), 자(者), -적(的), -성(性), -화(化)’등의 접미 파생 한자어로 이루어진 파생 한자어가 많았다. 따라서 교육용 한자어 등급을 선정하는 주관적인 방법에서 한자어의 구성 초급·중급·고급을 나누는 선정기준으로 제시하겠다.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는 한자에 대한 선행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어의 구성이 복잡한 합성 한자어와 파생 한자어 보다는 단일어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사의 경우 단일어의 수가 파생어보다 많았다. 때문에 단일어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쉬운 한자어는 초급 어휘로 다룬다. 파생 한자어의 경우 접두 한자어·접미 한자어가 붙어 단어를 형성하는 생산성이 높은 어근도 초급 어휘로 다룬다. 즉 ‘-가(家), -자(者-)’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 한자어들은 초급에서 다루겠다. 합성 한자어의 경우 한자어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때문에 그 구성이 비교적 쉬운 형태적 구성 합성어와 통사적 구성 합성어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어를 중급 어휘로 다룬다.

기본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이며 학습에 필요한 어휘로 교실 생활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어휘를 중급 어휘로 다룬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II장의 한자어의 구성을 바탕으로 단일어 중에서도 그 빈도가 낮은 어휘를 중급 어휘로 다룬다. 파생 한자어의 경우 ‘대(大)-, 불(不)-’처럼 비교적 쉬운 파생 한자어와 결합하는 어휘를 중급 어휘로 다룬다.

고급 어휘에서는 학습의 내용 목표가 되는 교육용어휘로 어휘소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개념어들과 ‘적(的), -성(性), -화(化)’와 같이 접미 한자어와 결합하여 형성된 어휘들은 고급 어휘로 다룬다. 접두 한자어 ‘무(無-)’의 경우 ‘조건, 의미하다’와 결합하여 ‘무조건, 무의미하다’를 생성하였다. 이중 ‘무조건’은 중급 어휘로, ‘무의미하다’는 고급 어휘로 다룬다.

이상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의 등급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김광해(2003)과 조남호(2003)의 목록을 비교하여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1차 등급을 설정하였다. 이후 기초어휘와 기본어휘 그리고 교육용어휘의 개념을 바탕으로 초급·중급·고급으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의 1차 등급을 재조정하였다. 선정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초급)-238개

가수, 가족, 감사, 감사하다, 강, 개울, 개, 개월, 건강, 건강하다, 건물, 검은색, 결혼, 결혼식, 결혼하다, 경찰, 경찰관, 경찰서, 계속, 계절, 계획, 고향, 공원, 과자, 교과서, 교수, 교실, 교통, 교회, 구, 군인, 권, 극장, 근처, 급, 기차, 남녀, 남자, 남쪽, 남편, 내년, 내일, 년, 노란색, 대화, 댁, 도시, 도착, 도착하다, 동물, 동쪽, 만, 매일, 맥주, 명, 모자, 목요일, 목욕, 문, 문제, 물건, 물론, 미안하다, 박물관, 반(半), 반(班), 발음, 방, 백, 백화점, 번, 번호, 병(病), 병(瓶), 병원, 보통, 복잡하다, 부모, 부모님, 부부, 부인, 북쪽, 비행기, 사, 사과, 사무실, 사용하다, 사장, 사진, 산, 삼, 색, 색깔, 생선, 생일, 생활, 서쪽, 선물, 설명, 설명하다, 세, 세수, 소개하다, 수건, 수요일, 시(市), 시(時), 시간, 시계, 시작, 시작되다, 시작하다, 시장, 시험, 식당, 식사, 식사하다, 식탁, 신문, 실례, 십, 씨, 안경, 약, 약속, 약속하다, 양복, 여자, 여행, 역, 역사, 연습, 연필, 열심히, 영어, 영화, 오, 오진, 오후, 외국, 외국인, 요리하다, 우산, 우유, 운동, 운동장, 운전, 운전하다, 월, 월요일, 위험, 위험하다, 유명하다, 육, 은행, 음식, 음악, 의사, 의자, 이, 이번, 이해하다, 인사, 일요일, 일주일, 자동차, 자전거, 작년, 잔, 잠시, 잡지, 장, 장미, 장소, 전, 전화, 전화하다, 점심, 정말, 죄송하다, 주, 주소, 주인, 준비, 준비하다, 중요하다, 지금, 지도, 지하, 질문, 질문하다, 차, 창문, 책, 천, 청소, 초대, 축구, 출발하다, 철, 층, 친구, 친절하다, 철, 침대, 토요일, 파란색, 팔, 편지, 표, 피곤하다, 필요, 필요하다, 한국, 한번, 한자, 항상, 형, 호, 화요일, 화장실, 환자, 회의, 후, 흰색

※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중급)-770개

가격, 가구, 가능성, 가능하다, 가정, 가짜, 각, 각각, 각국, 각자, 각종, 간단하다, 간단히, 감동, 감상, 감상하다, 감정, 강도, 강물, 강제, 강조하다, 강하다, 개인, 거실, 건너편, 건축, 검사, 겁, 결과, 결국, 결심하다, 결정, 결정되다, 결정하다, 경기, 경영, 경우, 경제, 경험, 경험하다, 계단, 계산, 계산하다, 계속되다, 계속하다, 계약, 고객, 고급, 고등학교, 고등학생, 고려하다, 고모, 고민, 고민하다, 고생, 고생하다, 고생, 고생하다, 고장, 교통, 공간, 공기, 공동, 공무원, 공부, 공부하다, 공사, 공연, 공장, 과, 과거, 과장, 과제, 과학, 관계, 관광, 관련, 관련되다, 관련하다, 관리, 관심, 관찰하다, 관하다, 광고, 굉장히, 교문, 교육, 교환, 구하다(求-), 구하다(救-), 국가, 국기, 국내, 국민, 국어, 국제, 국회의원, 군

(君), 군(君), 군대, 권하다, 귀국, 귀국하다, 규칙, 그중, 근로자, 근무, 근무하다, 글자, 금, 금년, 금장, 급하다, 기간, 기계, 기대, 기대하다, 기도, 기록하다, 기본, 기사(記事), 기사(技士), 기술, 기억, 기억하다, 기자, 기준, 기초, 기회, 긴장, 긴장하다, 낙엽, 남(南), 남(男), 남매, 남성, 남학생, 남한, 내용, 내지, 년도, 노동자, 노력, 노력하다, 노인, 논문, 농사, 농업, 농촌, 능력, 다수, 다양하다, 다행히, 단, 단순하다, 단순히, 단어, 단지(但只), 단지(團地), 단체, 담당하다, 답하다, 당신, 당연하다, 당연히, 당장, 당황하다, 대, 대답, 대답하다, 대문, 대부분, 대신, 대통령, 대표, 대하다, 대학, 대학생, 대회, 덕분, 도구, 도로, 도망가다, 도서관, 도중, 독서, 동기, 동네, 동시, 동양, 동진, 동화, 뒷산, 등, 등록, 등록금, 만, 만약, 만일, 만족하다, 만화, 말, 매력, 명령, 목사, 목적, 목표, 무시하다, 무역, 무조건, 문장, 문학, 문화, 물론, 미래, 미소, 미술, 민족, 박사, 박수, 반대, 반대하다, 반장, 반지, 반찬, 반하다, 발견, 발견되다, 발달, 발달하다, 발생, 발생하다, 발음하다, 발전하다, 발표, 발표하다, 밤중, 방금, 방문(房門), 방문(訪問), 방문하다, 방법, 방송, 방학, 방향, 배경, 배우, 번역, 법, 벽, 변하다, 변호사, 변화, 변화하다, 별, 별로, 병들다, 보고, 보고서, 보통, 보험, 보호, 복도, 본래, 봉투, 부, 부근, 부동산, 부분, 부자, 부장, 부족(不足), 부족(部族), 부족하다, 부처, 부탁, 부탁하다, 북, 북한, 분명, 분명히, 분석하다, 분위기, 불가능하다, 불교, 불만, 불안, 불안하다, 불편하다, 불행하다, 비교, 비교하다, 비밀, 비용, 비판하다, 사고, 사무, 사물, 사실, 사업, 사용, 사용되다, 사용자, 사원, 사자, 사진, 사회, 삼촌, 상, 상대, 상대방, 상상하다, 상자, 상처, 상품, 상하다, 생활하다, 서류, 서양, 석유, 선배, 선생, 선생님, 선수, 선택, 선택하다, 성, 성격, 성공, 성공하다, 성인, 성적, 세계, 세금, 세기, 세상, 소개, 소개되다, 소녀, 소년, 소문, 소비자, 소설, 소식, 소주, 속도, 속하다, 손녀, 손수건, 손자, 솔직하다, 솔직히, 수많다, 수상, 수술, 수업, 수염, 수입, 수입하다, 수출, 수출하다, 수학(修學), 수학(數學), 수화기, 숙제, 순간, 순서, 순수하다, 술잔, 숫자, 습관, 승용차, 신, 시도, 시도하다, 시민, 시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인, 시절, 시집, 식, 식구, 식물, 식품, 신고, 신랑, 신문사, 신부, 신체, 신호, 실내, 실력, 실수, 실수하다, 실제, 실패, 실패하다, 심각하다, 심리, 심하다, 안방, 안전, 안전하다, 안주, 암, 애인, 약, 약간, 약하다, 양, 어색하다, 억, 여, 여관, 여성, 여유, 여학생, 역시, 역할, 연결되다, 연결하다, 연구, 연구하다, 연기, 연락하다, 열, 열차, 영원하다, 영원히, 예, 예상, 예술, 예술가, 예정, 온도, 완전히, 왕, 외, 외삼촌, 외출, 외출하다, 외할머니, 요구하다, 요청, 욕심, 우선, 우수하다, 우승, 우연히, 우울하다, 운, 운전자, 원래, 원하다, 월급, 위치, 위하다, 유교, 유리, 유리창, 유명, 유학(儒學), 유학(留學), 유학생, 의미, 의미하다, 의심하다, 의하다, 이동, 이모, 이사, 이상(以上), 이상(理想), 이상(異常), 이상하다, 이성, 이외, 이용, 이용되다, 이용하다, 이유, 이익, 이전, 이하, 이해, 이혼, 이후, 인간, 인구, 인기, 인상(引上), 인상(印象), 인생, 인원, 일반, 일부, 일상, 일정, 임금, 임시, 입구, 입학, 입학하다, 자격, 자기, 자료, 자세히, 자식, 자신, 자연, 자연스럽다, 자유, 자유롭다, 자체, 작가, 잠시, 장, 장군, 장르, 재료, 재산, 저자, 저축, 적, 적당하다, 적당히, 적용하다, 전국, 전기, 전달, 전달하다, 전문, 전문가, 전부, 전자, 전쟁, 전체, 전통, 전하다, 전혀, 절대, 절대로, 절반, 점, 점차, 정, 정도, 정리, 정리하다, 정말, 정말로, 정문, 정보, 정상, 정식, 정신, 정원, 정치, 정하다, 정확하다, 정확히, 제공하다, 제목, 제출하다, 제품,

제한, 조각, 조건, 조사, 조사하다, 조상, 조심스럽다, 조심하다, 졸업, 졸업하다, 종, 종교, 종류, 종업원, 종일, 종합, 주로, 주문하다, 주변, 주부, 주사, 주요, 주위, 주인공, 주장하다, 주제, 주택, 죽, 중, 중간, 중심, 중요, 중학교, 중학생, 즉, 즉시, 중세, 지구(地區), 지구(地球), 지난번, 지방, 지역, 지점, 직업, 직원, 직장, 직접, 진짜, 진출, 진하다, 진행되다, 진행하다, 질, 질서, 집중, 차례, 차이, 참가하다, 참석하다, 창고, 창밖, 책임, 책임자, 청년, 청소년, 체육, 초(初), 초(秒), 초등학교, 초등학교, 총장, 최고, 최근, 최대, 최선, 최소한, 최초, 추억, 출근, 출근하다, 출발, 출입, 충격, 충분하다, 충분히, 취직, 취하다, 치료, 친절, 친척, 친하다, 칭찬, 답, 태도, 태양, 토론, 통(通), 통(桶), 통신, 통일, 통하다, 퇴근, 퇴근하다, 특별, 특별하다, 특별히, 특징, 특히, 파도, 판단, 판매, 판매되다, 판매하다, 편, 편리하다, 편안하다, 편하다, 평범하다, 평생, 평소, 평화, 폭, 표시하다, 표정, 표현, 표현하다, 풍경, 피로, 피부, 학교, 학년, 학생, 학습, 학원, 한편, 합치다, 해결, 해결하다, 해석, 해외, 행동, 행동하다, 행복, 행복하다, 행사, 향기, 향하다, 허용하다, 현관, 현대, 현재, 형님, 형제, 호랑이, 호수, 혹은, 화가, 화려하다, 확대, 확대되다, 확대하다, 확실하다, 확실히, 확인, 확인하다, 환경, 환영, 활동, 활동하다, 활발하다, 활용하다, 회복하다, 회색, 회원, 회장, 효과, 후배, 후회하다, 휴가, 흥미, 희망

※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고급)-981개

가능성, 가령, 가사, 가정, 가치, 가치관, 가하다, 각기, 각오, 간, 간격, 간부, 간신히, 간판, 간혹, 갈등, 감, 감각, 감독, 감옥, 감히, 강도, 강력하다, 강렬하다, 강요하다, 강의, 강의하다, 강조, 강화하다, 개선, 개선되다, 개선하다, 개성, 개인적, 객관적, 거대하다, 거리, 거부하다, 거절하다, 건, 건설, 건설하다, 건전하다, 검사, 검토, 견해, 결론, 결석, 결석하다, 결심, 결코, 경계, 정기, 경력, 경비, 경영하다, 경쟁, 경제적, 경향, 계곡, 계층, 고구려, 고려, 고전, 고집, 공통스럽다, 고향, 곡, 곡식, 곤란하다, 공격, 공격하다, 공공, 공군, 공급, 공기, 공식, 공업, 공연되다, 공연하다, 공연히, 공주, 공중, 공통, 공통되다, 공포, 과, 과거, 과연, 과정(課程), 과정(過程), 과학적, 관계되다, 관념, 관리, 관리하다, 관습, 관점, 관찰, 광경, 광장, 굉장하다, 교사, 교양, 교장, 교환하다, 교훈, 구, 구별, 구별되다, 구별하다, 구분, 구분되다, 구분하다, 구성, 구성되다, 구성하다, 구속, 구속되다, 구속하다, 구역, 구조, 구체적, 국회, 군, 군사(軍士), 군사(軍事), 권리, 권위, 귀신, 귀중하다, 귀하다, 규모, 규정, 균형, 그녀, 극, 극복하다, 극히, 근거, 근거하다, 근로, 근본, 근본적, 근원, 근육, 금액, 급히, 기(氣), 기(旗), 기관, 기구(器具), 기구(機構), 기능(機能), 기능(技能), 기도하다, 기독교, 기록, 기록되다, 기본적, 기업, 기여하다, 기원, 기적, 기초하다, 기타, 기호, 기획, 긴장되다, 난리, 남북, 내, 내부, 내외, 노동, 논리, 논쟁, 논하다, 농민, 농부, 뇌, 눈동자, 당방, 다소, 다정하다, 다행, 단, 단계, 단위, 담당, 답, 당당하다, 당시, 대, 대가, 대강, 대개, 대기, 대륙, 대비, 대비하다, 대사(大使), 대사(臺詞), 대신하다, 대접, 대접하다, 대책, 대체, 대체로, 대표하다, 덕, 도(度), 도(道), 도달하다, 도대체,

도덕, 도망, 도망치다, 도입, 도장, 도저히, 도전, 독립, 독립하다, 독특하다, 독하다, 동
 (同), 동(棟), 동기, 동료, 동의, 동의하다, 동일하다, 동작, 동포, 동등, 등록하다, 등장, 등
 장하다, 리, 만세, 만점, 만족, 말투, 망하다, 매달, 매주, 면(面), 면(綿), 면적, 면하다, 명
 예, 명칭, 명확하다, 모, 무, 무기, 무대, 무리, 무의미하다, 문서, 문자, 물가, 물질, 물체,
 미, 민간, 민주, 민주주의, 민주화, 밀접하다, 박, 반면, 반성, 반성하다, 반영하다, 반응,
 발달되다, 발전, 발전되다, 발표되다, 발휘하다, 밥상, 방면, 방바닥, 방송하다, 방식, 방
 안, 방해, 방해하다, 배, 백성, 백제, 번역하다, 번지, 별, 범위, 범인, 범죄, 법률, 법원, 법
 적, 법칙, 변동, 변명, 변화되다, 별다르다, 별명, 보고하다, 보도, 보도되다, 보도하다, 보
 상, 보수(補修), 보수(保守), 보장, 보장하다, 보조, 보편적, 보호하다, 북, 본, 본격적, 본
 부, 본성, 본인, 본질, 봉사, 부(部), 부(富), 부담, 부대, 부문, 부상, 부인, 부정, 부정하다,
 부친, 분노, 분명하다, 분석, 분야, 불가피하다, 불과, 불과하다, 불구하다, 불법(不法), 불
 법(佛法), 불편, 불평, 불행, 비, 비극, 비난, 비명, 비상, 비율, 비중, 비판, 비하다, 비행
 장, 사건, 사고, 사과, 사기, 사례, 사망, 사상, 사실상, 사전, 서정, 사회생활, 사회적, 사
 회적, 사회주의, 사회학, 산업, 상(上), 상(床), 상(像), 상관, 상당하다, 상당히, 상대적, 상
 식, 상업, 상인, 상점, 상태, 상황, 생, 생기, 생명, 생물, 생산, 생산하다, 서구 서부, 서서
 히, 석, 선, 선거, 선명하다, 선언하다, 선전, 설사, 설치, 설치되다, 설치하다, 성(性), 성
 (城), 성경, 성당, 성립되다, 성립하다, 성명, 성실하다, 성장, 성장하다, 성적, 성질, 세,
 세계관, 세계적, 세대, 세월, 소득, 소망, 소비, 소속, 소수, 소용, 소원, 소유, 소유하다,
 소음, 소재, 소중하다, 손해, 수, 수단, 수도, 수십, 수없이, 수요, 수입되다, 수준, 수행하
 다, 순간적, 순수, 승리, 시, 시각(視角), 시각(時刻), 시기(時機), 시기(時期), 시도, 시선,
 시야, 시위, 시장, 시점, 시중, 시집, 시집가다, 식량, 신, 신경, 신고하다, 신념, 신라, 신
 부, 신분, 신사, 신화, 실로, 실망, 실망하다, 실시, 실시되다, 실시하다, 실은, 실정, 실제,
 실질적, 실천, 실천하다, 실제, 실험, 실현, 실현되다, 실현하다, 심사, 심장, 심정, 심판,
 안, 안내, 안심하다, 안정, 안정되다, 압력, 애정, 애초, 야단, 약점, 양(羊), 양(量), 양(嬢),
 양식(洋食), 양식(樣式), 양심, 억울하다, 언론, 언어, 업종, 업체, 여간, 여건, 여론, 여인,
 여전히, 역, 역사적, 연결, 연관, 연극, 연기, 연기하다, 연락, 연설, 연속, 연애, 연장, 연
 주, 연합, 염려, 영상, 영업, 영웅, 영향, 영향력, 영혼, 예감, 예방, 예산, 예상되다, 예상
 하다, 예외, 예의, 예컨대, 오락, 오해, 완성, 완성되다, 완성하다, 완전, 완전하다, 왕비,
 왕자, 외면하다, 외부, 외할아버지, 요구, 요구되다, 요청하다, 욕, 용, 용감하다, 용기(容
 器), 용기(勇氣), 용서, 용서하다, 용어, 우려, 우정, 우주, 운명, 운영하다, 원고, 원인, 원
 장, 위(位), 위(胃), 위기, 위대하다, 위로, 위로하다, 위원, 위원장, 위협, 유리하다, 유물,
 유사하다, 유산, 유지하다, 유형, 육군, 육체, 은, 음성, 의논, 의논하다, 의도, 의무, 의문,
 의사, 의식(意識), 의식(儀式), 의식하다, 의심, 의욕, 의원, 의존하다, 의지, 의지하다, 이
 내, 이념, 일, 이성, 이용자, 이자, 이중, 이해, 인, 인간성, 인간적, 인격, 인류, 인물, 인
 상, 인식하다, 인연, 인정되다, 인정받다, 인정하다, 인하다, 일단, 일대, 일반적, 일생, 일
 정하다, 일종, 일체, 일치, 일치하다, 일행, 임무, 입장, 자(字), 자(者), 자극, 자극하다, 자
 녀, 자살, 자살하다, 자세, 자세하다, 자연히, 자원, 자존심, 작성, 작성하다, 작업, 작용,
 작용하다, 작품, 장관, 장기간, 장면, 장식, 장치, 재수, 재정, 재판, 저편, 적극적, 적용되

다, 적절하다, 적합하다, 전, 전개, 전개되다, 전개하다, 전기(前期), 전기(傳記), 전달, 전달되다, 전망, 전망하다, 전반, 전선, 전설, 전시, 전체적, 전통적, 전환, 전환하다, 전후, 절, 절대, 절대적, 절망, 절차, 접근, 접근하다, 접촉, 접하다, 정기, 정당, 정리되다, 정면, 정부, 정상, 정상적, 정성, 정신없이, 정신적, 정직하다, 정치인, 정치적, 제거하다, 제공, 제사, 제시, 제시되다, 제시하다, 제안, 제약, 제외하다, 제외, 제자, 제작, 제출, 제한되다, 제한하다, 조(條), 조(組), 조선, 조정, 조직, 존경하다, 존재, 존재하다, 존중하다, 중, 좌우, 죄, 죄인, 주, 주문(呪文), 주문(注文), 주민, 주식, 주요하다, 주의, 주의하다, 주일, 주장, 중년, 중대하다, 중세, 중앙, 중요성, 증가, 증가하다, 증거, 증권, 증명하다, 지경, 지극히, 지대, 지도, 지도자, 지방, 지배하다, 지불하다, 지시, 지시하다, 지식, 지식인, 지원, 지원하다, 지적(知的), 지적(指摘), 지적하다, 지점, 지지, 지출, 지혜, 직진, 직접적, 직후, 진리, 진실, 진심, 진지하다, 진출하다, 진행, 질병, 짐작, 짐작하다, 집단, 집중되다, 집중적, 집중하다, 차(次), 차(差), 차량, 차차, 차창, 착각, 착각하다, 참가, 참여, 참여하다, 창, 창가, 창작, 창조, 창조하다, 처녀, 처리, 처지, 척, 천장, 천재, 철, 철도, 철저히, 철학, 철학자, 청춘, 청하다, 체험, 초기, 초대, 초집, 초조하다, 총(銃), 총(總), 총각, 최후, 추진, 추진하다, 출신, 출판사, 치료법, 친정, 침묵, 침착하다, 탁자, 택하다, 토대, 토하다, 통계, 통과하다, 통로, 통일하다, 통제, 통증, 통합, 통화(通貨), 통화(通話), 투명하다, 투자, 투표, 특성, 특수, 특정하다, 파악하다, 파출소, 판(版), 판(板), 판단하다, 평(坪), 평(評), 평가, 평가되다, 평가하다, 평균, 폭력, 표, 표면, 표시(表示), 표시(標示), 표시하다, 표준, 표현되다, 풍부하다, 풍속, 피하다, 피해, 필연적, 필요성, 하, 하필, 학과, 학자, 한(限), 한(恨), 한계, 한반도, 합리적, 합하다, 항의, 해, 해결되다, 해답, 해당되다, 해당하다, 해석, 해석하다, 핵, 핵심, 행사, 행위, 행하다, 향하다, 향상, 허락, 허락하다, 허용, 허용되다, 현, 현대인, 현상, 현실, 현실적, 현장, 협력, 형, 형사, 형성, 형성되다, 형성하다, 형수, 형식, 형태, 형편, 혜택, 호기심, 호주머니, 호흡, 흑시, 홍수, 화면, 화장, 화제, 화학, 확산, 확인되다, 활용, 회, 회관, 회복, 회복되다, 회의, 회전, 효과적, 후기, 후반, 후보, 후회, 훈련, 흑인, 흔적, 흥분, 흥분하다, 희망하다, 희생, 희생하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비한자문화권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선정의 필요성과 교육용 한자어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한자어의 교육 위계에 따른 등급

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연구의 한자어 교육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교육용 한자·한자어 선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선정 기준과 목록이 달라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어의 선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설정하고 선정된 한자어를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 그 기준을 고찰해 보고자 했다.

먼저 II장에서는 한자어의 개념과 한자어의 구성, 한자어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자어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II장에서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 관련한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을 살펴보았다. 현행 한국어 교재는 주제 중심으로 단원이 이루어져 있고, 그 주제에 따른 어휘가 제시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 보다는 제시하고 있는 한자어는 제한적이어서 제외했다. 그리고 한자 교재의 한자어 목록은 한자어를 교육하기 위한 목록이 아닌 한자를 교육하기 위한 목록으로 한자어가 아닌 한자에 그 목적이 있어 제외했다. 때문에 한국어 교육 어휘 목록과 관련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자어 목록을 비교하여 한자어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한자어를 총 어휘 목록을 기초로 하여 II장에서 살펴본 한자어의 구성과 어휘소를 근거로 하여 총 어휘 목록을 검증·보완하였다. 또한 선정된 한자어 목록을 등급화하기 위해 그 기준으로 한자어의 빈도와 교육용 어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의 절충 방법으로 객관적 방법으로는 빈도를, 주관적 방법으로는 교육용 어휘 개념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바탕으로 1차 등급을 설정하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어휘 개념과 한자어의 구성을 고려하여 초급·중급·고급으로

한자어의 등급을 재조정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와 한자어 등급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할 때 한자어에 주목하여 총 어휘 목록을 산출하고, 한자어의 구성을 고려하여 목록을 검증·보완하였다. 또한 한자어의 등급을 설정할 때 한자어의 빈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어휘 개념과 한자어의 구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초급·중급·고급으로 제시하였다.



참고 문헌

- 강현화(2001), “한국어교육용 기초 한자어에 대한 기초 연구-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어휘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제12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고영근(197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언어교육 제6권,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광미(2009), “한자어 조어법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 박이정
- 김선희(2003), “한자어 교육을 통한 국어 어휘력 증진에 관한 연구: 지도 방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철(1997), “한자어 단어형성에 대하여”, 국어학 제29권, 국어학회
- 김익수(1988), “한자의 자형분석을 통한 자의의 이해”,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1997), “한자어의 단어형성법 연구”, 어문논집 제7권, 숙명여자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김지형(2003),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기초한자의 선정-초·등급 한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1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창섭(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제37권, 국어학회
- 김현정(2008),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한자어 선정과 교육 학습 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1990), “한자어의 어휘형태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제95권, 국어연구회
- _____ (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제51권, 국어학회
- _____ (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_____ (2008), “한자어의 의미 범주와 한자 형태소의 배열 순서”, 한국문화 제44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마숙홍(2004), “한국어와 중국어의 한자어 조어법 대조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 외(2004),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손연자(1984), “비한문 문화권의 외국인에 대한 한자교육 방법론 소고”, 말 제9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제8권, 국어연구소
- 오수진(2005), “비한자문화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규(1997), “한자어 단어 형성에 대하여”, 한양어문 제15권, 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2000), “현대국어 한자어의 기능 단위 연구”, 한양어문 제18권, 한국언어문
화학회 구) 한양어문학회
- 이영희(2008),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이용우(2005), “초등학교 한자어 교육을 통한 어휘력 신장에 관한 연구”, 공주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2004), “중학교 국어과의 교육용 한자어 선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우(1994),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대표 어휘 선정”, 국어교육 제85권, 한국
어교육회
- 이혜영(200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기초 한자 선정과 한자 교재 모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진(197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교과편찬에 대한 기초연구”, 언어교육
제6권,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정순금(2006), “한자의 조어력을 응용한 외국인의 한자어 학습방안”,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혜(1999), “외국인을 위한 국어 한자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정원수(1988), “한자어 단어형성의 특성”, 어문연구 제18권, 충남대학교 문리과학대
학어문연구회
- _____(1990), “국어의 단어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범희(1998), “한자어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재형(2008), “한자어의 단어 형성의 특성에 대한 일고찰”, 어문론집 제38권, 중
앙어문학회
- 조현용(1999),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 高鳳論集 제25권, 경희
대학교 대학원
-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 주의란(2003),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위한 지도 대상 한자 선정 연구”, 홍익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영희(2003), “생태학적 언어관에 의한 국어 어휘 교육”, 배달말 제33권, 배달말학

회

채영희 외(2003), “한·일·중 3국의 한자의 수용과 변용”, 동북아문화연구 제4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최주열(1995), “한자 교육 방법에 관한 고찰-외국인에 대한 한자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말교육 제5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재영(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자교육을 위한 기초적 연구-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문연구 제31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황애정(2001), “교육용 기초한자 선정의 새로운 모색”,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자료>

국립국어 연구원(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서상규 외(199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 기초 어휘 빈도 조사 결과』, 문화관광부



A Study on Rating Sino-Korean Words for KFL Learners with Non-Chinese Cultural Backgrounds

PU-YOUNG K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How to teach Sino-Korean words to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learners is one of the concerns that KFL teachers have. Since Sino-Korean vocabulary items take up 69.1% of the entire Korean vocabulary, teaching them should be considered as critical part of Korean vocabulary education.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on teaching Sino-Korean words combined with Chinese characters i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However, teaching methods suggested in these studies are advantageous to the learners from the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where Chinese characters are used. Therefore, it is needed to take a different method when teaching learners from non-Chinese cultures. Moreover, teaching Chinese characters does not necessarily benefit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it can only add unnecessary burden to the learners.

Thus, this paper focuses on teaching Sino-Korean words to KFL students with non-Chinese cultural backgrounds.

This study selected out Sino-Korean words from the existing educational vocabulary of Korean education first, and rank them according to the level of difficulty. A List of the Sino-Korean words for KFL learners is presented in the study and it is divided into three levels, which are basic,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 This list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useful data in the field of Korean vocabulary education especially for learners with non-Chinese cultural backgrounds.

